



이 세상에 태어나 67년 동안 살아오느라 수고 많았다.  
즐겁고 재미있었던 시절도 있었고,  
때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오늘의 너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지금까지도 잘해 왔으니, 앞으로도 잘살 것이다.  
  
-이기풍이 이기풍에게 \_나에게 쓰는 편지 중에서

있는 그대로 그림편지  
영덕에 사는 어린이와 어른의 그림편지



김용룡 김영숙 이기풍 박향희 김영해 최기열 박숙희 금나운 황숙현 권종희  
김재원 신아진 김지현 권세아 박소운 김리하 김도하 최지용 임선미 박유솔







## 있는 그대로 그림편지

영덕에 사는 어린이와 어른의 그림편지





여는 글 ● 4

어른의 그림편지

김응룡 ● 8

명훈 손자에게  
나의 친구 책에게  
수박에게

김영숙 ● 16

사랑하는 아들 식아  
길가에 서 있는 벚꽃나무  
소중한 공기

이기풍 ● 24

사랑하는 아내 현후씨에게  
나의 두 다리에게  
기풍에게 - 나에게 쓰는 편지

박향희 ● 32

아버지에게  
국화꽃에게  
경정바다에게

김영해 ● 40

그녀에게 - 마지막 배웅  
가방에게  
여름 마당에게

최기열 ● 48

사랑하는 딸에게  
나의 고양이 치치에게

박속희 ● 54

숙희에게 - 나에게 쓰는 편지  
나의 첫 번째 강아지 설이에게  
아들과 함께 떠난 여행에게

금나윤 ● 62

보고 싶은 친구에게  
나의 신발에게  
다이어트에게

황숙현 ● 70

어두운 동굴을 터널로 만들어 준 친구에게  
위대한 양배추에게  
'있는 그대로 그림편지'에게

권종희 ● 78

내 어린 시절의 기억, 내 친구 미라에게  
아카시향 가득한 토끼풀에게  
나의 영어에게

어린이의 그림편지

김채원 ● 88

아진이에게  
부모님께  
매리에게

신아진 ● 94

채원이에게  
부모님에게  
토끼에게

김지현 ● 100

엄마 아빠에게  
레몬에게  
지구에게

권세아 ● 106

연우에게  
바다에게  
우리 집에게

박소윤 ● 112

엄마에게  
선생님께  
사랑이에게

김리하 ● 118

엄마께  
모카에게  
별에게

김도하 ● 124

엄마께  
지구에게  
블랙홀에게

최지용 ● 130

이대한에게  
나무에게  
화가 많은 번개에게

임선미 ● 136

부모님께  
나의 핸드폰에게  
귀여운 노랑이, 초록이에게

박유솔 ● 142

엄마 아빠께  
우리 집 도마뱀들에게  
드래곤볼에게

## 그림편지를 쓰고 그린

작가님들께

픽웁니다

<있는 그대로 그림편지>는 영덕군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쓰고 그린 작품들이 실려 있습니다. 처음 경상북도 교육청 영덕도서관으로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글쓰기, 그림 수업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라도 제치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이런 수업을 듣는다면 어떤 글이 접근하기 쉬울까 고민했습니다. 부모님의 목소리는 언제나 소중한 사람들을 향해 말 글로써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목소리와 가장 가까운 형식인, 한번쯤은 써본 적 있는 ‘편지’를 써 보기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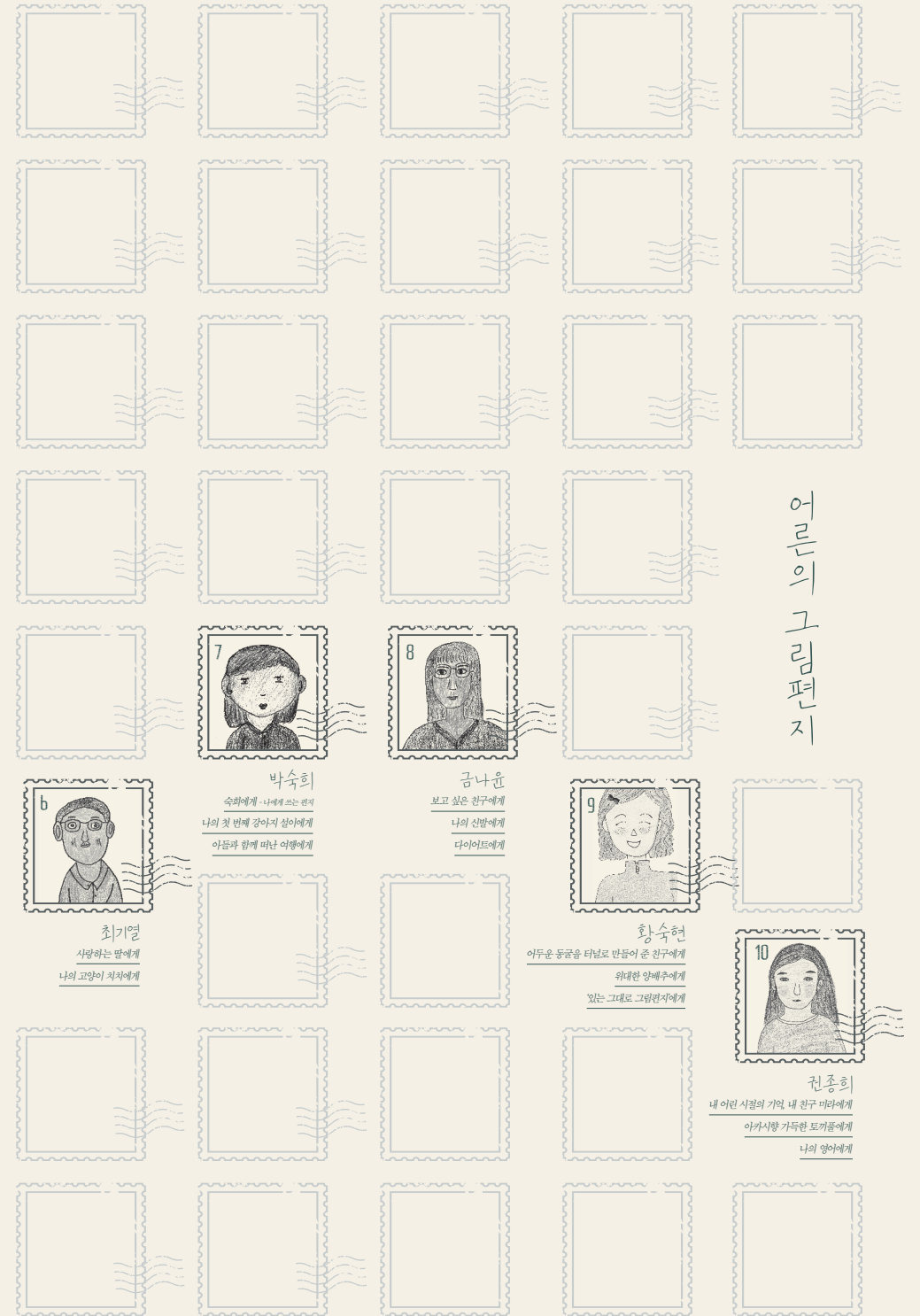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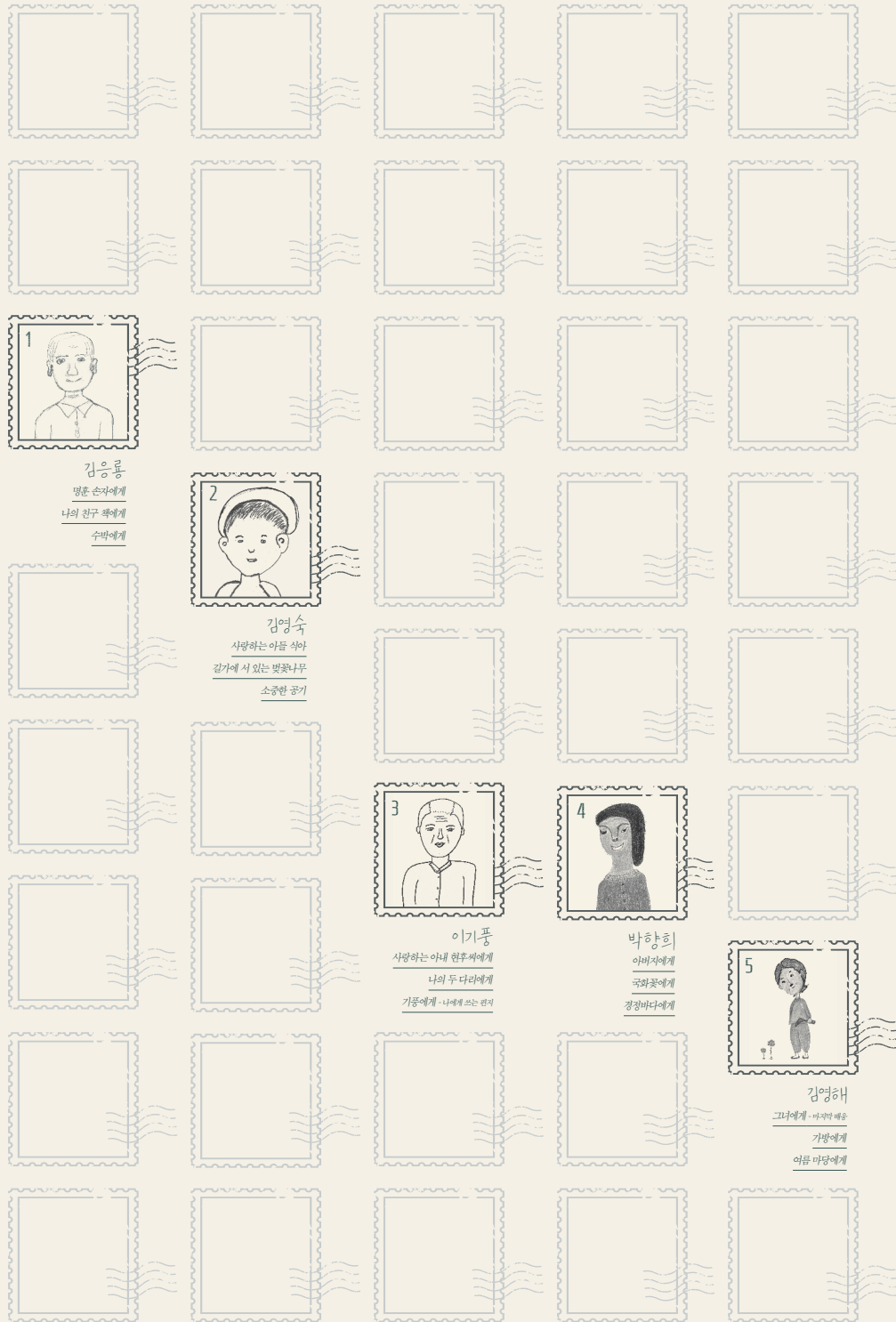
하지만 어르신들 가운데 글을 배운 적이 없어 이 수업 시간을 통해 생애 첫 편지를 쓴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자꾸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아내를 생각하며 글을 쓰기도 하고, 어린 시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어린 자신에게 편지를 쓰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대상은 모두 달랐지만, 마음을 담아 꼭꼭 눌러 쓴 편지는 모두 진심이 깊이 배어나왔습니다.

연필을 잡고 그림을 그렸던 첫 시간에,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며 글과 그림을 그릴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아 주기도 했습니다. 수업 시간은 매 회마다 재미있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생전 처음 그려 보는 그림에도 내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었나? 이번 기회에 그림을 그려볼까? 라는 말을 하셔서 모두 한바탕 웃기도 했습니다.

웃음은 어린이 수업 때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 입력에 익숙한 어린이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손으로 쓰는 편지를 주저 없이 쓱쓱 써 내려 갔습니다. 어린이들은 편지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대상을 찾아 편지를 쓰고 그림도 자유롭게 그렸습니다. 떠오른 생각 하나에도 신이 나고 행복해지는 어린이들의 그림은 순수함 그 자체였습니다. 수업을 가르치러 왔지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가에 대해 새삼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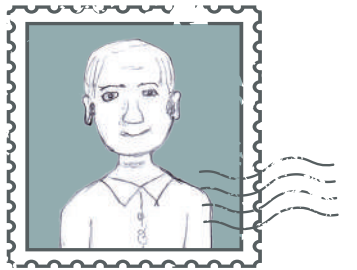
빗속을 뚫고 사 오셨던 아이스크림, 금방 탄 삶은 옥수수, 가지런히 책상 위에 놓인 병음료, 무엇보다도 따뜻한 손길과 위로의 말씀들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어울려 쓰고 그렸던 <있는 그대로 그림편지>가 일생 어느 때 내렸던 시원한 단비와 같은 책이 되길 바라며, 내내 행복하시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2023. 9. 경주 소소밀밭에서  
구서보, 지혜



명훈 손자에게.  
우주과학자라 되기 위해 명훈이는 초등학교에  
부터 구경하여. 특별한 책을 보기 위해. 욕심에  
올라가서. 추운 겨울 밤 새도록 지켜본 너.  
아빠가 늦게 돌아오는 밤은 엄마. 중생은  
방에서 자고 있는데. 명훈이는 마누라 렌트를  
치고. 아빠한테까지 기다렸던 명훈손과.  
특별한 아이임을 느낀다.  
먼 미래에 훌륭한 우주과학자라 되기를  
기원한다.  
할아버지. 2023. 6. 13.

1948년생



김응룡

명훈 손자에게

나의 친구 책에게

수박에게

부산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정년퇴직 후, 바다가 있는 영덕이 좋아 3년 전 이사했다. 가끔 서울과 영덕을 오가기도 하고, 서울에서 가족과 손주들이 내려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가족 모두가 영덕으로 이사해 여유와 즐거움을 함께 누리기를 희망한다.

## 명훈 손자에게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던 명훈아,  
밝고 장난기 많은 아이인 줄로만 알았는데,  
점점 꿈을 향해 달려가는 너를 볼 때마다 할아버지는  
어느 순간부터 명훈이를 다르게 보았단다.

초등학교 때부터 망원경을 구입하여  
밤하늘의 별을 진중하게 바라보았던 명훈아,

아빠가 늦게 돌아왔던 날이었던가,  
엄마, 동생은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명훈이는 마루에 텐트를 치고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했잖니,

어느 추웠던 겨울밤에도 특별한 달을 보기 위해 옥상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하늘을 지켜보기도 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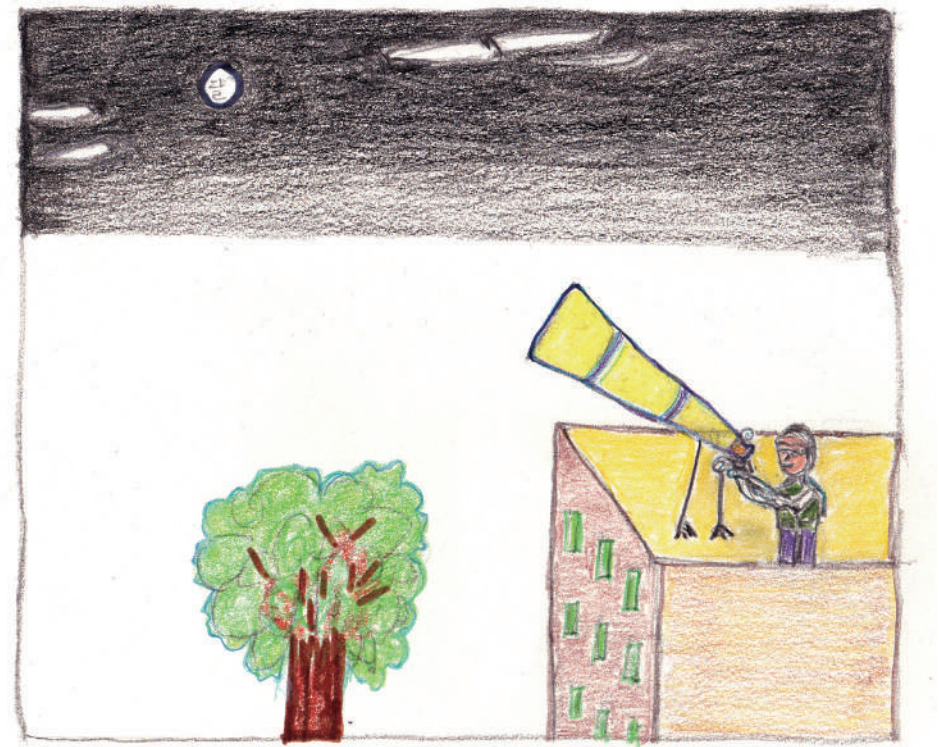
그런 명훈이는 분명 특별한 아이일 거라고,  
늘 생각한다.

우주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너의 말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짝 차게 했단다.

먼 미래에 훌륭한 우주과학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2023년 6월 13일

할아버지가





## 나의 친구 책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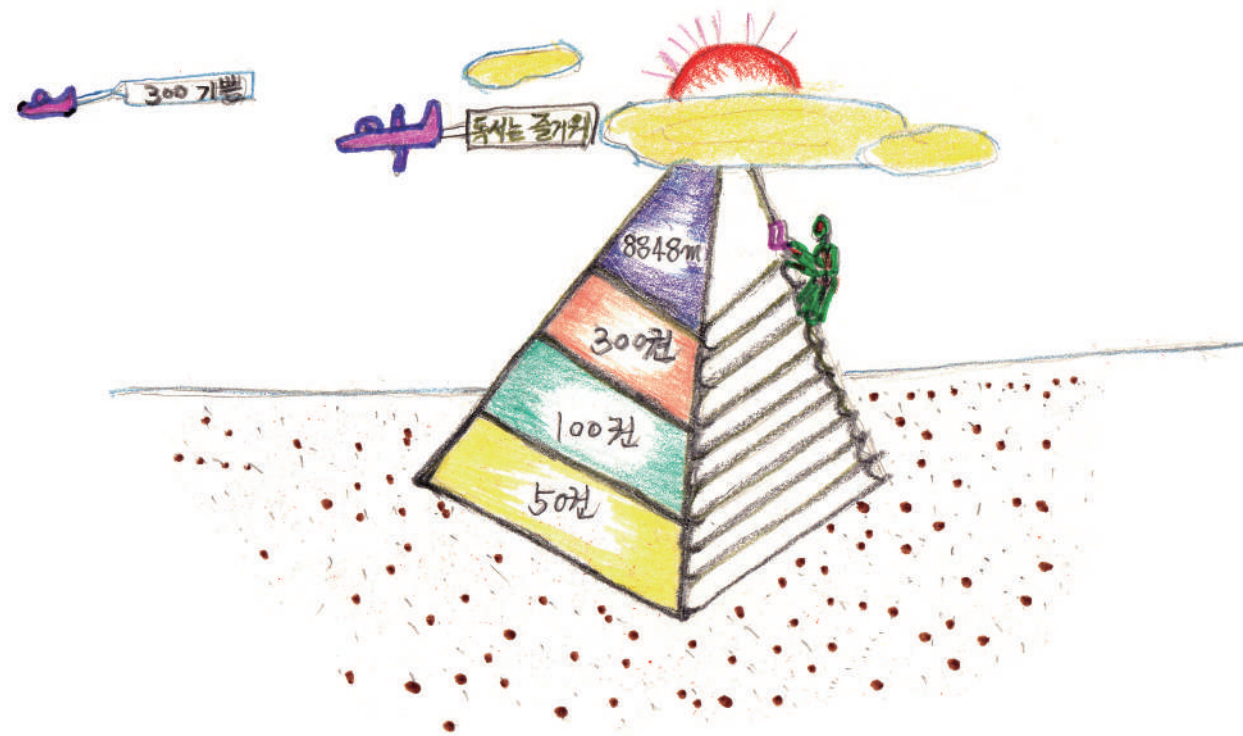
사람은 먹고 싶고,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을 통해서  
마음대로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책을 많이 보면 간접적이지만,  
알프스산도, 에베레스트산도 사막도 가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통해 시간 여행을 하면서,  
옛 성현들의 발자취를 통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노사연의 노래처럼 나이 든다는 것은  
늘어가는 것이 아니고, 독서를 하면서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00권을 목표로 독서를 다시 하기로 했고,  
최근에는 '100권의 도서 목록표'를 구해서 한 권 한 권  
시작해 보았습니다.

점점 친구가 되어가는 나의 친구 책,  
300권 친구야, 빨리 만나자! 보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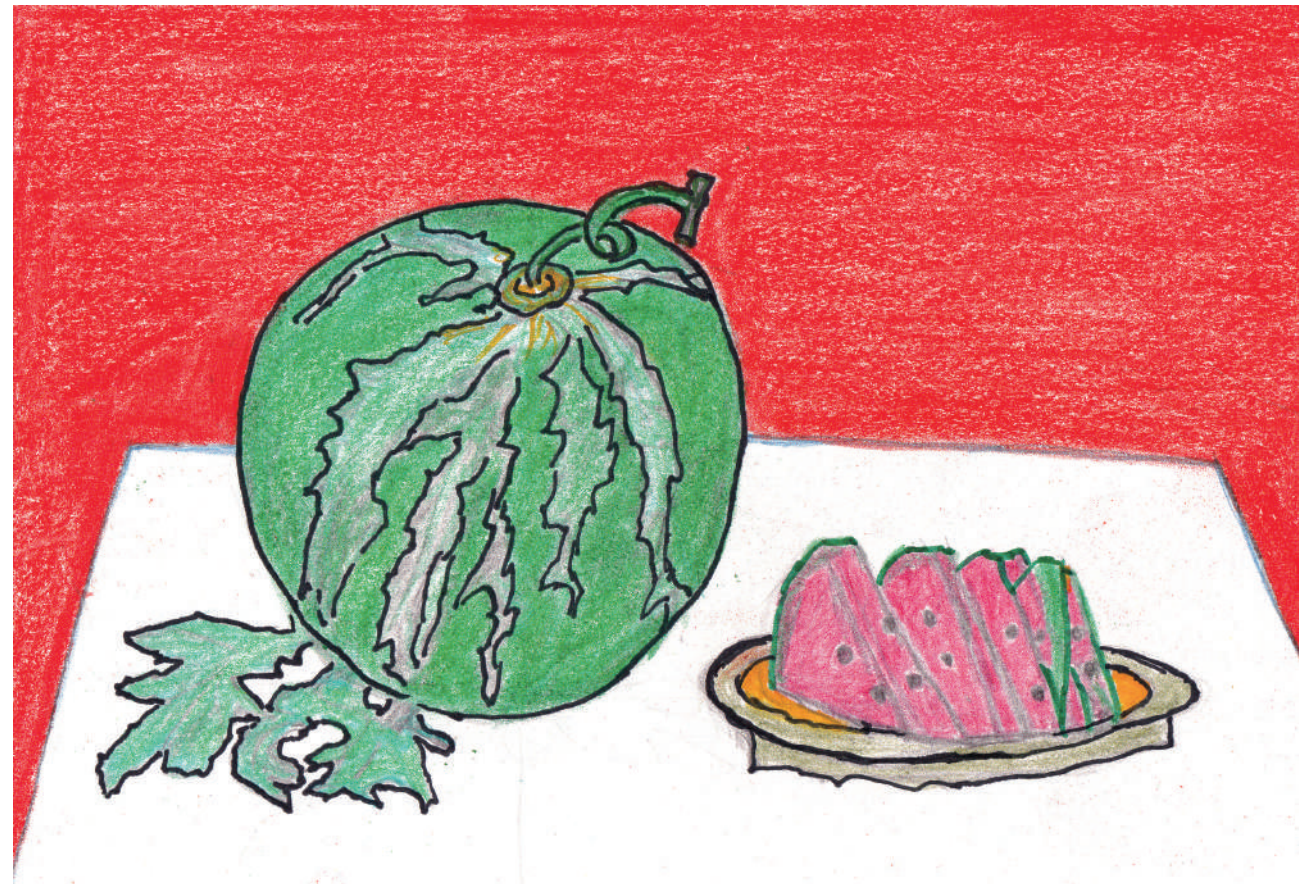


## 수박에게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나 달고 시원한 수박을 맛있게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사람도 수박과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도가 높고 잘 익은 수박은 피곤함과 더위를 식혀 준다.  
묵직하고, 색깔이 뚜렷한 것을 단수박이라고 하고,  
맛없는 수박은 물수박이라고 한다.  
사람도 맛있는 사람이 되려면 약속을 잘 지키고  
지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일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물수박 같은 사람일 테다.

나도 잘 익어 가고 싶다.  
그리고 잘 익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다.  
그럼 삶은 더욱 즐거워질 것 같다.  
달고 시원한 수박을 먹으며 그런 생각을 했다.



##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이름은 김영숙이고 나이는  
72 살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곳은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신세계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안계셔서 외할머니 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학교갈 나이가 됐는데 학교를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공부는 하고 싶는데 학교를 안보내 주더라고요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28 살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들 둘 낳아서 열심히 일해서 대학원까지 공부시켜  
결혼도 하고 분가해서 잘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겠다고 재각을  
하고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글을 배워야 겠다고  
다짐을 하고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어 배움의 나무  
학교에서 3년의 과정의 한글공부를 졸업  
마쳤습니다.  
문화원 한글 선생님께서 있는 그대로 그림 편지  
쓰기를 소개 하셔서요 제가 할수 있을까요 했더니  
할수 있다 하기에 신청을 해주셨어요  
부족하지만 용기를 내어 오게 되었습니다  
작은 소망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1954년생



김영숙

사랑하는 아들 식아

길가에 서 있는 벚꽃나무

소중한 공기

경기도에서 태어나 결혼을 하면서부터 영덕에서 살게 되었다. 어려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외할머니 댁에서 살았다. 학교에 다니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았다. 열심히 일하며 살다 스물여덟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아들 둘을 낳았다. 내 자식들 만큼은 잘 가르치고 싶어 대학원까지 보냈다. 평생 글을 모르고 살다가 평생교육원을 통해 글을 배웠고, 용기도 얻었다. 작은 소망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글을 쓰고 싶다.



## 사랑하는 아들 식아

많이 늦었지만 엄마가 처음 써 보는 편지란다.  
 너 군대 갔을 때 편지 한 장 보내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었다.  
 아들,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엄마가 글을 몰라 그랬단다.  
 지난 날의 엄마는 엄마 기준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하나씩 돌이켜 보니 엄마가 너무 부족했다.  
 너를 낳고 너무 좋았단다. 어느 날엔가 네가 아파서 밤중에  
 너를 업고 병원에 갔었을 때 힘들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괜찮아질 거라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많이 놓였단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썩 잘했던 너를 볼 때마다  
 엄마는 참 흐뭇하고 자랑스러웠단다.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제일 좋았단다. 사회생활 하면서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해서 내심 걱정을 했었는데,  
 네가 예쁘고 착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엄마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단다.  
 아들아, 부족한 엄마 아들로 태어나 줘서 고맙고 감사해.



자랑스러운 아들

## 길가에 서 있는 벚꽃나무

겨울이면 무뚝뚝하게 서 있다가  
봄이 오면 활짝 웃으면서 꽃을 피우는  
너는 좋은 나무야.

사람들은 너의 그늘 밑에 앉아서 사랑도 속삭이고  
서로 위로도 주고받고 용서도 하곤 한단다.

너, 목마를까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물도 주시고 햇볕도 비춰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벚꽃나무야,  
꽃잎이 떨어진다고 해도 슬퍼하지 않으면 좋겠다.  
더운 여름에 목말라도 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실 때 충분히 저장을 하렴.  
그렇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온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겨울을 잘 지내렴.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문화원 선생님들께서  
뜨개질한 옷을 입혀 줄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매일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너를 볼 거야.

다시 봄이 와 네가 꽃을 피울테니까.  
그런 봄을 나는 다시 기다릴게. 고마워, 벚꽃나무야.



## 소중한 공기

세상에는 소중한 것들이 많지만  
공기가 없으면 사람들도 식물들도 살 수가 없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이 공기를 더 오염시키는 것 같아.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차에서 나오는 매연, 모두 다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지구와 공기 두 친구는 너무 힘들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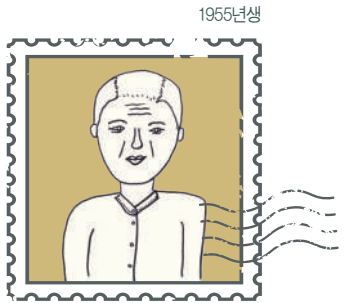
지구를 생각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바꿔 주면 좋겠다.  
그래서 오염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공기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다고 함부로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  
공기가 깨끗해야 모든 생물들이 마음 놓고 살 수가 있을 텐데  
바다 물속에 고기들도 아파하고  
하늘에 새들도 아파하는데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그래서 마음이 아파.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를 만나 42년 동안 함께 살아온 것에 대해 감사하오.  
 성격도, 살아온 환경도 다른 서로가 만나 조화롭게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죠!  
 그러나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며 맞추어 가며 지금까지 살아왔소.  
 지금이라고 다 잘 맞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도 끊임없이 서로를  
 알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후의 날까지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행복을 창조해 나가면  
 좋겠지요.  
 많이 갈수록 수애의 삶이 더욱 빛나는 영광스러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정쩡 시절, 함께 전리고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줄 당신에게 큰 박수를 보내오.  
 항상 몸과 마음의 건강에 유의하길 바라오. 그리고 당신의 표정이 더욱  
 밝고 미소편 표정으로 바뀌길 기대하오.  
 나도 당신과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는 일이라면 끊임없이 노력하겠소.  
 어느 날, 저 천국으로 떠나기 전에, 혹여나 이련이 조금도 남지  
 않게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품성기 누이며 살아감시다.  
 당신의 남편으로부터

2023년 5월 30일



이기풍

사랑하는 아내 현후씨에게

나의 두 다리에게

기풍에게 -나에게 쓰는 편지

신학을 공부하고 한평생 구세군교회 사관(목사)으로 전국을 다니며, 목회를 이끌고 봉사를 하였다. 즐거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수도 없이 있었지만, 대체로 감사가 넘치는 날들이었다. 은퇴 후에도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찾아 참여하고 있으며, 친구들도 새롭게 사귀고 있다. 건강을 위해 날마다 운동을 하며, 봉사활동도 하려고 한다. 지금, 이 곳이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며 매일을 살아간다.



## 사랑하는 아내 현후씨에게

현후씨, 평소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는데,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름을 불러봅니다.

나를 만나 42년 동안 함께 살아준 것을 감사하오.  
성격도, 살아온 환경도 다른 서로가 만나 조화롭게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죠. 그러나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고 맞추어가며  
지금까지 살아왔소.  
지금이라고 다 잘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서로를 알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후의 날까지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행복을 창조해 나가면 좋겠어요.  
날이 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 빛나고 영광스러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함께 견디고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준 당신에게 큰 박수를 보내오.  
사랑하는 현후씨, 항상 몸과 마음이 건강하길 바라오.  
그리고 언제나 더 밝고 미소 띤 얼굴을 보고싶소.  
그럴 수 있도록 나도 많이 도와주겠소.  
당신과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는 일이라면 끊임없이 노력하겠소.  
어느 날, 저 천국으로 떠나기 전에 후회와 미련이 조금도 남지 않도록  
오늘, 이 땅에서 행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갑시다.  
현후씨, 사랑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당신의 남편 기풍으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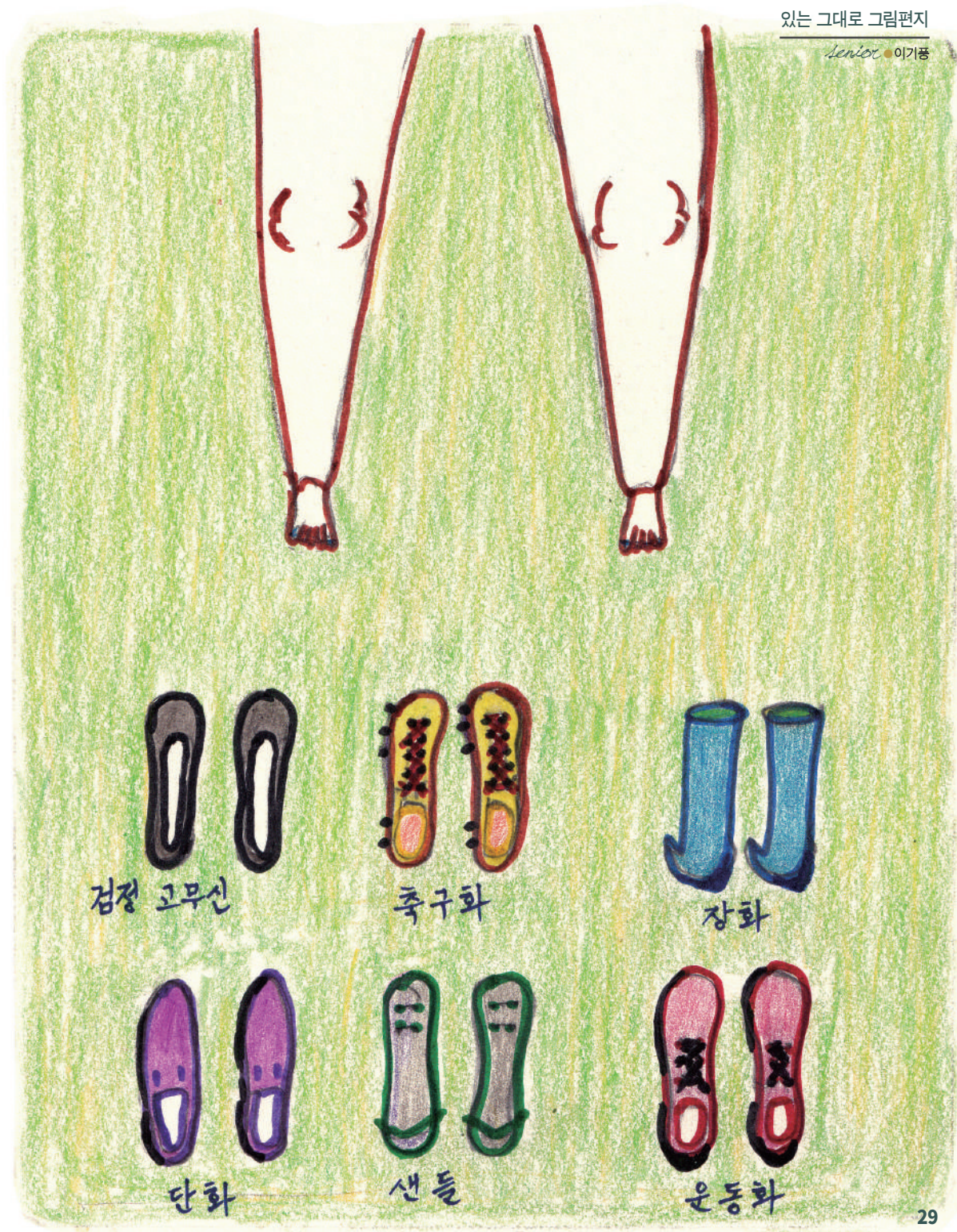


## 나의 두 다리에게

사랑스러운 나의 두 다리야!  
 내 몸을 67년 동안 가야할 곳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고맙다.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싫다고 하지 않고  
 체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도움을 준 너에게 감사한다.  
 걸어서, 뛰어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때때로 클러치, 액셀러레이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특히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축구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때로는 몇 번의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최근까지도 네 덕분에 득점왕이 되니,  
 그 영광을 너와 함께 나누고 싶구나!

다른 사람들이 종종 너를 보고,  
 굵고 건강하게 생겼다고 말하더구나.  
 너도 그 말을 들었지?  
 나는 너를 위해 배드민턴장에서도 헬스장에서도  
 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단다.

그동안 너에게 고맙다는 말도 한 번 못했는데,  
 이 편지로나마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기쁘구나.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도할게!  
 사랑해, 나의 다리야!





기풍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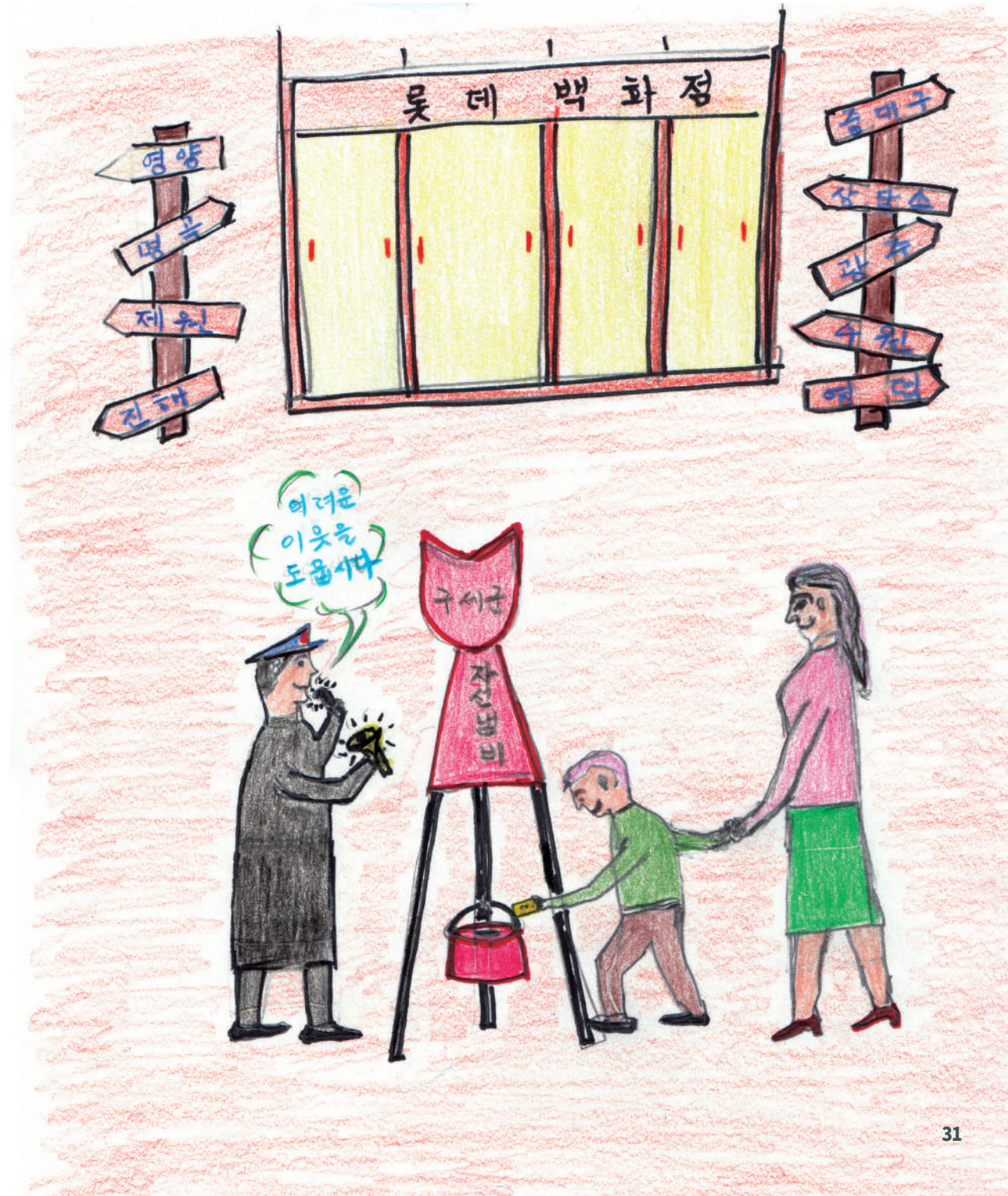
-나에게 쓰는 편지

기풍아, 이 세상에 태어나 67년 동안 살아오느라 수고 많았다.  
즐겁고 재미있었던 시절도 있었고,  
때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오늘의 너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이리라.  
인생의 종착점에서 후회도 미련도 없기를 바란다.  
한 번 밖에 없는 인생!  
환경을 탓하며 세월을 보내며 허비할 수는 없다.  
너 자신의 마음가짐과 방향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도 잘해 왔으니, 앞으로도 잘살 것이다.  
멋지게 살아갈 너에게 힘찬 박수를 보낸다.

2023년 7월 11일  
이기풍이 이기풍에게



## 하루의 시작

아빠는 6.25 때 동사시인 3년을, 한복을 갈고서 전역해서 권으로 인하여 하수  
재판이 뒤처져 3년 더 병마고지 재판소에서 사형까지 들어 간다  
너무도 고생해서 어머니도 아플라 해서 6년만에 저를 남겼고  
현상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관세청에 너무도 힘드셨는지, 관세청에서  
노동조합에 시달려서 해로로 하셨다 그후로 장남에게만 유산을  
받게 하시어 아버지 집은 산을 300여평 지각이라서, 딱딱 땅을  
놓았으니, 그 땅배로 땅이가 된 내기 학교에서는 너무 많이 하면서  
취직하면 하수에 세우면 되고 아니라니까 저마다 보고 권으로  
돈을 받았고 저는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 집이 너무 불쌍했거든요,  
그에서 인장 받았지만은 그들도 꼭한 땅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동남해, 18평의 다 고등학교, 대학을 보냈다

귀찮은 나는 공부도 안하고 국산지는 부끄럼에 대꾸도 안해서  
정작이제 갓이 귀찮은 나는 공부 기준이 없어서 졸업도 안하고  
본래의 평범에 갓이 그리고 그 탓에 나는 유년자의 부끄럼을 기

나에게는 순화 되어 11월 11일엔 한제 한제들고 36명이  
는 지금만 같으며 나는 취조의 26복지다

1959년생



박향희

아버지에게

국화꽃에게

경정바다에게

여덟 명의 자매 중 맏딸로 태어나 동생들을 돌보느라 공부를 하지 못했다. 배우는 기쁨을 알아가며, 그림을 그리는 이 순간도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하다. 28년간 학교에서 조리사로 일했으며, 정년퇴직 후 손자 손녀를 돌보며 살아 가고 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할 일들을 찾으며, 그 감사와 사랑을 손자 손녀에게 쏟고 있다.



##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 곳에서 평안하시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살아 오셨던 삶에 대해서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6.25 사변 용사였고, 군복무 3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시려는데, 한국전쟁이 일어나 3년이나 더 백마고지 전쟁터에서 총알을 피해가며 시체 속에 숨어 지내셨다고요. 지금의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어머니와 약혼하시고 6년 만에 저를 낳으셨고, 지난 날의 군생활이 너무도 힘들셨는지, 늘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들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야산 3000평을 개간하면서 딸만 8명을 낳으셨지요. 그 동생들의 맏이가 된 저는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불평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새벽별 보며 나가셨다 저녁별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오직 부모님 말씀만 잘 듣는 착한 딸이 되었어요. 그 힘든 와중에 아버지 어머니는 저희를 모두 교육을 다 마치게 해 주셨지요. 하지만 저는 대구의 중학교에 들어갔지만, 워낙 기초가 없는 터라 졸업도 하지 못하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스물 셋에 시집을 갔어요.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을 했어요. 그곳이 학교였어요. 그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36년을 부모님을 모시면서 28년을 고생이 고생인 줄 모르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학교 조리사로 살았어요.

지금은 퇴직하고 손자 손녀를 두 집으로 번갈아가며 보는 즐거움으로 살고 있어요. 이만큼 제가 행복을 느끼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리울 때마다 그 옛날처럼 편지를 쓰겠습니다.

2023년 5월 30일  
아버지의 맏딸 향희로부터



## 국화꽃에게

꽃은 다 예쁘지만 나는 국화꽃이 가장 좋아.  
보라색, 노란색, 하얀색, 핑크색 색색이 정말 아름다워.  
국화는 추운 겨울, 따뜻한 봄,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에 꽃을 피워.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고 꽃을 피우니,  
얼마나 멋진 꽃이야.

국화는 어디에 놓아도 빛나.  
생일, 돌잔치, 입학, 승진, 장례식  
하얀 국화는 떠나가는 사람을 환하게 밝혀 주기까지 하잖아.  
국화는 그렇게 삶 곳곳에서 우리를 챙겨주지.  
너무나 큰 행복을 주는 최고 멋진 국화꽃!  
나는 국화꽃이 가장 좋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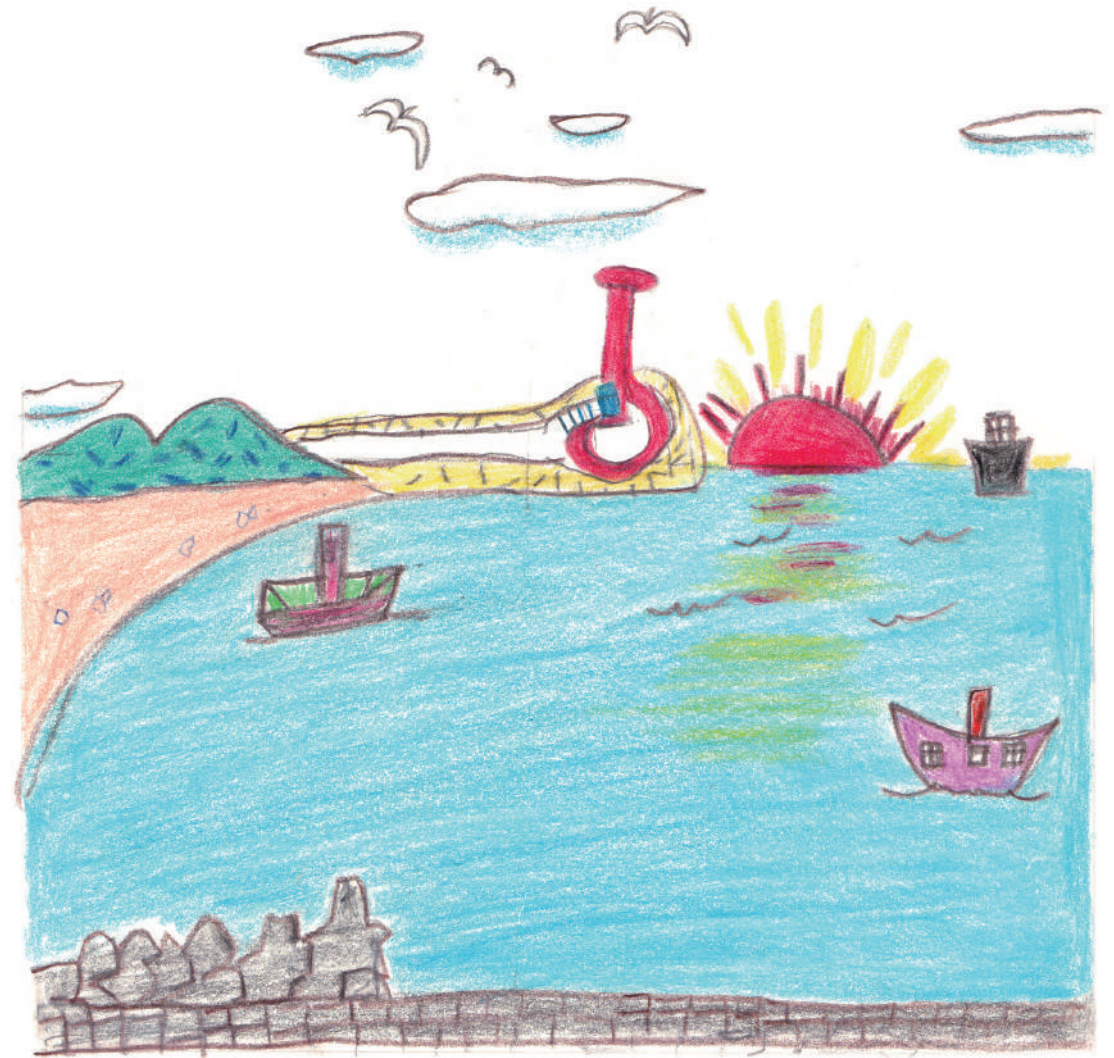
## 경정바다에게

아침마다 바다를 보며 집을 나선다.  
 바다는 대체로 아름답지만,  
 해 뜨고 해질녘의 바다는 가장 아름답다.

바다는 깊고 넓어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받아들인다.  
 바다는 사람의 마음과 같아서  
 금세 잔잔했다가 금세 파도를 친다.  
 바다는 어머니 같기도 하고, 아버지 같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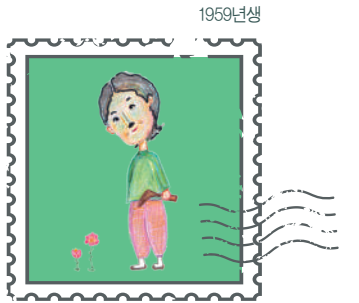
바다는 우리에게 풍요로운 양식을 주고  
 평온한 마음을 주기도 하지만, 무섭고 슬프기도 하다.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동네 형님도 미역을 건지다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바다는 가족과 친구를 슬프게 한다.

그래도 나는 매일 아침마다 바다를 바라본다.  
 한 없이 넓고 깊은 바다  
 나도 바다를 닮고 싶다.





병실에 들어온 감았던 눈을 뜨고 '바깥에 나가야겠다' 하려고요.  
 저, 당신에게 항상 바보 떠돌이였던 병이든 못이든도 최선을 다하는  
 처치인 양이었거든요.  
 꼭 죽어보려도 솜에나 삶의 원리를 생각합니다.  
 태어나길 기약하며 지켜보는 우리처럼 이제 당신의 마지막 길은  
 배웅할 시간은 기다립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진정 사랑했나? 하지만 당신의 그늘아래서  
 마지막 배웅은 모든 것이 말려 들어가는 어머니 <sup>마음</sup> ~~마음~~에 문방고는  
 떨어지면서 발을 뒤흔들며 마지막 끝내주는 드립입니다.  
 이제 어머니의 전여행이 시작될 겁니다.  
~~후회와 후회~~ <sup>조용</sup> ~~조용~~ 연꽃같이 수위에 연꽃이었듯이 그윽한 걸음으로 가십시오.  
 각 진정 감사했습니다.



김영해

그녀에게 마지막 배웅

가방에게

여름 마당에게

서울에서 나고 자라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다가 바다가 보이는 영덕으로 이사 온지 3년째이다. 주로 하는 일은 청소  
 이지만, 텃밭과 마당이 있어 그곳이 내 놀이터이다. 인생 3막은 이웃과 솜씨 나누며 수다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드  
 는 게 꿈이다. 그곳에서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하는 풍요가 가득하길 바란다.



## 그녀에게

## -마지막 배웅

병실에 들어가니 감았던 눈을 뜨고 “바쁘데 어찌 왔냐”고 하셨지요.  
 전 당신에게 항상 바쁘며 느리었고  
 보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척하진 않았을까요.  
 꼭 쥐어보려는 힘 없는 손에서 삶의 원판을 생각합니다.  
 태어나길 기다리며 지켜보는 우리처럼  
 이제 당신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시간을 기다립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진정 사랑했나? 하지만 당신의 그늘 아래에서  
 때론 햇볕을 가리고 때론 비를 가리며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배변을 보고 혀가 말려들어가는 어머니 마른 입술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며 받은 호흡이 끝나감을 느낍니다.

이제 어머니의 긴 여행이 시작될 겁니다.  
 종이 연꽃 감아 수의에 얹었듯이 고운 걸음으로 가십시오.  
 진정 감사했습니다.

2023년 6월 13일  
 큰며느리 드림





## 가방에게

장롱 속을 정리하다 선반 위에 놓여 있는 너를 발견했어.  
 진한 곤색은 빛바랜 듯 흐려지고 가방 모서리는 닳아  
 희끗함이 보이는 게 지금 나와 너무 비슷하구나.

제안서 담고 설명서 담고 다이어리 담고 텀블러까지 챙길 수 있는  
 너는 넉넉한 나의 동반자였지. 기억의 조각을 꿰맞춰 주는 것처럼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을 하나 둘 내어 주는 너였어.  
 정신없이 급하게 나갈 때에도 너만 들고 나가면 부족함이 없었지.  
 하지만 코로나로 일은 멈추고 오래도록  
 너는 장롱 속에서 나을 일이 없게 되었어.  
 어쩌면 앞으로도 나을 일이 없을 것 같아.

오늘 다시 너를 천천히 쓰다듬어 본다.  
 혹시 함께할 시간이 더 남아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이제 나는 너를 재활용센터로 보내려고 해.  
 너를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네가 다시 신 나게 다녔으면 좋겠어.  
 매끈하고 예쁘지는 않았지만,  
 씩씩하고 튼튼했던 내 가방아,  
 나와 함께 살아온 시간들을 기억할게.

수고했고 고마웠다.



## 여름 마당에게

자니?

햇볕이 띄약띄약

뜨거운 한낮의 마당은 강아지도 고양이도

하물며 이른 새벽 내 울어대던 닭조차 잠들고

여름 마당의 오후는 모든 것이 순간 정지된 듯하다.

모두들 조용한데

잡풀이 비 한번 맞으면 머리채 끌어 올리듯

한줌씩 커서 키 재기하고 있다.

담장 옆 옥수수는 키만 주뻗 크더니

수염도 나고 애기 팔뚝 만한 옥수수도 매달고 있고,

오이는 조랑조랑 노랑꽃 끝마다 맺혀 있다.

들깨 잎도 작년보다 향이 더 진하다.

도라지꽃은 보라색과 흰색의 별을 만들어 초록 바람 따라 춤추고,

더덕도 용을 쓰며 얼굴들을 내밀고 있다.

씨앗 뿌린 상추는 손톱 만하게 올라오더니

어느새 손바닥보다 커져 따 먹기 바쁘고,

작년 파종된 대파도 힘차게 뻗는다.

아하

너희들 이렇게 바빴구나.

밤에도 자고 한낮에도 자고

내내 잠만 자는 줄 알았어.

뜨거운 햇살 아래

한여름 마당은 기다림이 익어가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구나.



사랑하는 딸에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사랑하는 딸아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지?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건강이 더 중요해.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나오지 않겠니?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일을 하든 지 즐겁지 않겠니? 아버님 젊었을 때 내 몸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지나치게 열심히 공부를 하느라 건강을 잃은 적도 있었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살았는지 후회가 많이 된단다. 그러니 너는 무엇보다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부나 해야 할 일을 하면 좋겠네.

요즘은 환절기라 낮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타나는 계절이니 감기를 조심하기라. 한 번씩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일광욕을 하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는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버드 대학의 공부 벌레들은 또한 하버드 대학의 운동 벌레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래.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도 생각이 나구나! 나는 네가 체력도 좋고 힘도 세고 남자 못지 않게 튼튼한 딸로 성장하면 좋겠어. 그럴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에 좋은 추억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안녕. 사랑하는 아버님

1968년생



최기열

사랑하는 딸에게

나의 고양이 치치에게

산과 바다 강과 하천이 있는 풍경이 좋아서 도시를 떠나 영덕 달산면 농촌에 살고 있다. 영덕 달산면은 산과 달이 특히 아름다워 자주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된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아름다움을 담고 싶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



## 사랑하는 딸에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사랑하는 딸아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지?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건강이 더 중요해.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지 않겠니?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지 않겠니? 아빠는 젊었을 때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지나치게 열심히 공부를 하느라 건강을 잃은 적도 있었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살았는지 후회가 많이 된단다.

그러니 너는 무엇보다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공부를 하고, 할 일을 하면 좋겠어.

요즘은 환절기라 낮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타나는 계절이니 감기를 조심하거라. 한 번씩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일광욕을 하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는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은 하버드 대학의 운동벌레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도 생각이 나는구나!

나는 네가 체력도 좋고 힘도 세고 남자 못지않게 튼튼한 딸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럼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에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2023년 5월 30일

사랑하는 아빠가



이쁜 너의 모습



아빠가 바라는 너의 모습

### 나의 고양이 치치에게

내가 어렸을 때는 고양이와는 인연이 별로 없었어.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도 강아지와는 친구처럼 놀며 같이 뛰기도 하고 장난도 많이 쳤는데, 크면서 동물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거의 가지지 못했단다.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되어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계속 그랬어. 바쁘게 살기만 했지.

하지만 내 나이 50살이 넘으면서 여유도 생겼고 시골에 살고 싶어졌단다. 그렇게 시골에 살게 되었는데, 고양이 너를 만나게 되었어. 우리는 네가 너무 귀여워 '치치'라는 이름도 지어 주었어. 너는 너무 작고 어려서 그저 나를 무서워만 했단다. 너에게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너는 나를 멀리했어.

그러던 어느 날 네가 다리를 많이 다쳤을 때였어. 그때 나는 네가 너무 불쌍했단다. 다친 상처를 보려고 너에게 가까이 갔을 때, 신기하게도 네가 나를 멀리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네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었지.

그 뒤로부터 너는 나의 친구가 되어 주었지.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내 옆에 와서 가만히 있어 주기도 하며,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했어. 고마웠어. 앞으로도 계속 나를 좋아해 주고 옆에 있어 주렴.

나의 고양이 치치, 고마워.



숙희에게.

70년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지  
농사 지으시는 부모님 이셔서 이른 새벽부터 저녁  
까지 논에서 일하시고 돌아오면  
저녁 배고 굶주리니. 따뜻한 대창도 없고.  
안아주시는 게 없이 시간이 흘러 가니 외로웠지  
농사도 쉬러 고향에 돌아와 보니  
죽은 양아버지. 할머니도 없고. 여네기도 없고  
잔꽃 피고도 흐뭇하게 웃으면서 자애로운 시간을  
보냈지. 어머니와 지게누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1971년생



박숙희

숙희에게 - 나에게 쓰는 편지

나의 첫 번째 강아지 설이에게

아들과 함께 떠난 여행에게

아름답고 공기 좋은 영덕읍에서 남편과 잘생긴 아들들과 오순도순 살고 있다. 몇 해 전엔 강아지 설이도 가족이 되어 돌보는 삶에 만족하고 있다. 책 읽기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



## 숙희에게

- 나에게 쓰는 편지

숙희야, 안녕, 문득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서 어린 나에게 편지를 써.  
 어린 숙희는 농사를 짓는 부모님 아래에 여덟 자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지.  
 농사를 짓는 부모님은 너무 바쁘셔서 얼굴 볼 틈조차 없었어.  
 하루 종일 일만 하시니, 저녁이 되면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주무셨지.  
 그러니 따뜻한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겠어? 언니들은 모두 바빴고,  
 동생들은 너무 어렸고……. 10살 무렵 동생을 등에 업고 돌봤던 기억도 나.  
 그때 다 그랬지. 내가 외롭다고 놀아달라고 투정부릴 수가 없었지.  
 그래도 부모님과 함께한 기억이 있기는 해. 농사를 도우러 같이 따라 갔을  
 때였는데, 내가 잘 하지 못했는데, 부모님이 흐뭇하게 웃어주셨었어.  
 그게 참 좋았어. 자유롭고 따뜻했던 기억이야.  
 공부를 잘 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어. 지금 생각하면 이기적으로 보일지  
 라도 나를 잘 돌봐줘야 했는데, 어린 숙희에게 미안해. 지금이라도,  
 나는 나에게 좀 더 잘하려고 해. 다행히 나에게는 힘들 때마다 돌봐주신  
 하나님과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 조금 덜 외롭고 행복해.  
 어린 숙희야,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너무 고생 많았어.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너를 꼭 안아줄 거야.  
 사랑해. 나의 어린 숙희.

2023년 6월 13일  
 지금의 숙희가 어린 숙희에게



## 나의 첫 번째 강아지 설이에게

설이야, 안녕!

네가 우리집에 온지 벌써 5년이 다 되어 가는구나.

너를 처음 봤을 때를 잊을 수가 없는데 말이야.

둘째 아들이 너를 데리고 왔을 때 사실 걱정이 많았단다.

왜냐하면 나는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거든.

처음 우리집에 온 날 너는 손바닥만큼 작았단다.

너무 어려서인지 잠도 아주 많이 잤단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아기인데 어미에게서 빨리  
떨어뜨려놓은 건 아닌지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지.

나도 강아지를 키운 게 처음이라 모든 게 서툴렀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예방접종을 시키는 것부터

먹이를 어떤 것을 먹여야 하는지도 조금 막막했어.

그런데 모든 게 처음이라서인지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점점 즐거웠어.

난생 처음 땅을 밟아보는 너의 모습도,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갑게 우리 가족을 맞이하는 너의 모습도 잘 놀고 잘 자는 설이

너를 볼 때마다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이 커졌단다.

설이야,

지금처럼 우리 가족의 귀염둥이로 오래 있어줘.

그렇게 우리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많이 만들자.





## 아들과 함께 떠난 여행에게

나에게는 기억에 남는 여행이 있어. 바로 아들과 한 여행이야.

나의 첫째 아들은 장애가 있어. 자라면서 그걸 견디는 시간이 아프고 힘들었어.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지. 그래도 일반 초중고를 거쳐 특수학교 전공과 졸업을 마쳐 어엿한 청년이 되었지. 여전히 몸이 불편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이야. 정말 감사한 일이지?

그러던 어느 날 단기선교를 하기 위해 외국에 갈 일이 생겼지 뭐야. 정말 좋은 기회였지. 나는 그 말을 듣고 걱정부터 앞섰어. 한 번도 외국에 나간 경험이 없는데다가 꼭 부모인 보호자가 동반되어야 한다잖아. 내가 함께 같이 가주지 않으면 네가 실망할까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외국 여행은 처음인데다 코로나로 입국심사가 어려울 때였거든. 모든 게 처음인 나는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기로 했어.

그런데 너와 함께 난생 처음으로 만든 여권을 가지고 공항에 들어서면서부터 설레기 시작했어. 비행기에 몸을 실으니 창밖에 구름이 너무 예쁜 거야. 구름 위에 떠 있다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 나는 행복한 기분이 들어서 아들의 손을 꼬옥 잡았어.

사역지인 태국에 내리자마자 선교사님이 반겨주셔서 안심도 되었지. 짜렐린 학교 복음사역, 타이 임마누엘 교회사역, 씬깃띠쿤 교회에 방문하여 아들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무언극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사역활동을 할 수 있었어.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에 앉자마자 감사기도가 절로 나왔지. 한국에 도착하자 서울에서 영덕까지 하얀 눈이 펄펄 내렸지. 새하얀 눈이 우리 모자를 잘

했다고, 대견하다고 칭찬해주는 것 같았어.

나는 아들과 함께한 그 여행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아, 그때 먹었던 쏘팜과 쌀국수도 함께.

우리 기회가 된다면 자주 여행을 다니자.

아들과 함께했었던 여행아, 고맙다. 그리고 아들, 사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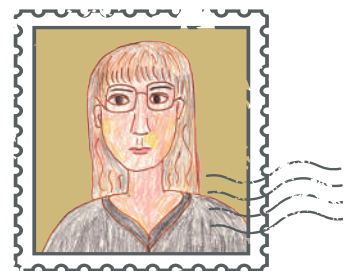
결혼하면서 영덕에서 정착하고 15년을 살았습니다.

늦은 결혼, 늦은 출산으로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딸아이 수업(그림편지)신청을하고 시니어님들께서 신청을  
안하셔서 수업을 들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수업을 들을수 있어서 제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와도 공감하는  
시간이 될수 있어서 좋습니다.

1972년생



금나윤

보고 싶은 친구에게

나의 신발에게

다이어트에게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영덕에서 15년째 살고 있다. 늦은 결혼과 출산으로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있다. 내 자신을 발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갖고, 딸아이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만들려고 한다.

## 보고 싶은 친구에게

안녕, 혜정아.

잊고 지낸 시간 속에서 우연히 ‘편지 수업’을 듣게 되면서 너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었는데, 그때는 너를 많이 알지 못했지만, 오히려 졸업을 하고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너를 만나서 너무 반가웠단다. 그게 다시 인연이 되어 서로 편지를 쓰기로 했었잖아.

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선택했고, 난 학원을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너를 생각하며 편지를 썼어. 지금도 나의 파일 상자에는 너의 편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어. 한참 연락이 끊긴 적도 있었지. 너는 대학생살에 바빠 편지가 뜸해졌고, 나도 그 이후론 편지를 쓰지 않았어. 그렇게 너는 대학생이 되어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어느 날 갑자기 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 한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살면서 잊고 살았던 너를 다시 기억하게 되는 시간이 되니, 너를 향한 마음이 너무 짙어 눈물로 기억되는 시간이 되어 버렸어. 좀 더 시간을 내서 자주 만났다면 좋았을 걸…….

좀 더 많은 대화를 했다면 어땠을까?

영원한 나의 스무살 친구 혜정아,

나는 어느덧 50대 아줌마가 되었단다. 예쁜 딸도 있고, 아주 잘 지내고 있어.

너는 그곳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니?

언젠가 나도 너를 만나러 가는 날이 있겠지? 그때까지 나 잘살고 있을게.

정말 보고 싶다, 혜정아.

2023년 5월 30일

친구 나운이가





## 나의 신발에게

안녕, 나의 신발아. 작년에 강구로 이사를 하고, 걸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신발을 석 달에 한 번씩 바꾸고 있단다. 홈쇼핑에서 주문했던 신발들이 신발장에 자리 잡고 있다가, 하나씩 내 발의 신발이 되어 함께 걷기 운동을 하고 있지.

너는 몸도 무거운 주인과 함께 아침부터 밤까지 함께 다닌다. 주인을 잘 만나서 좋은 길만 다니면 좋았을 텐데, 나는 너를 배려하지 않고 걸을 수 있을 때마다 틈만 나면 걷는다. 그래서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단다. 요즘은 '워크온챌린지'를 하기도 해서 작년보다 너를 더 힘들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 더 크단다. 그래도 너와 함께해서 내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단다.

하지만 곧 나는 너와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신발 바닥이 많이 해졌거든. 그런데 이렇게 미련이 남아 쉽게 보낼 수가 없구나.

내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애써 준 너,  
나에게 걸을 수 있는 힘을 준 너에게  
늘 고맙고 감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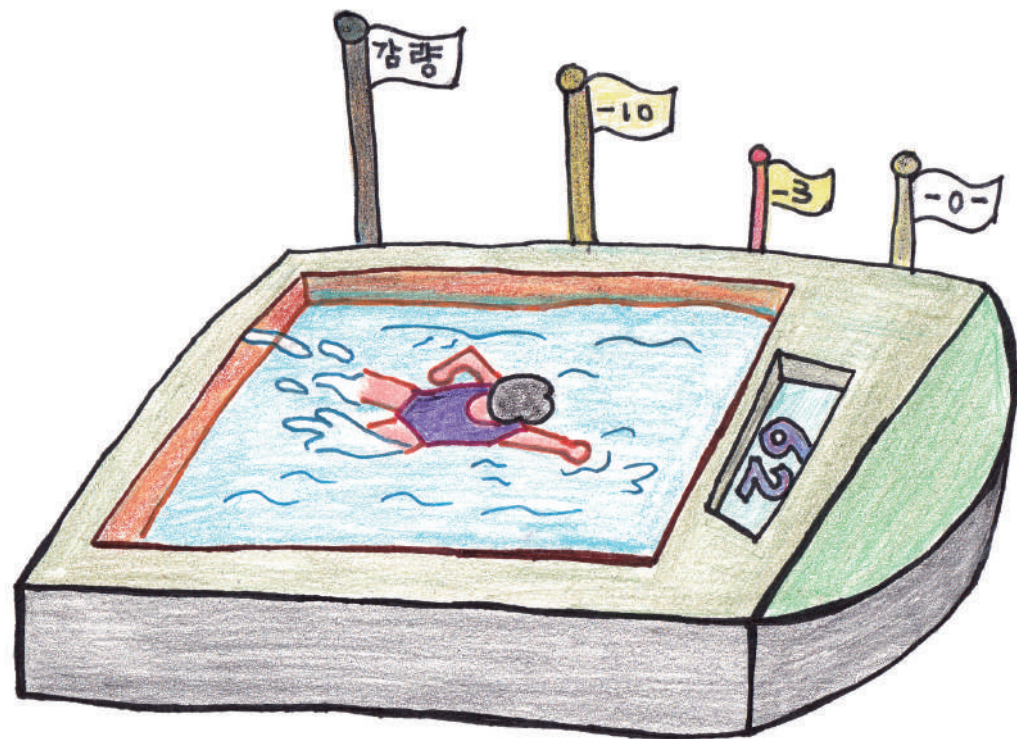
## 다이어트에게

안녕 반가워.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너를 처음 만났단다. 음식을 좋아하는 나에게 굶어야 한다는 걸 처음 알려 주었지. 그게 얼마나 힘든지 너는 알까? 나의 동반자일지도 모를 다이어트야. 나는 너를 잘 다스리기 위해 많은 것들을 해 봤어. 하루 종일 굶고, 효소와 물만 먹어야 하는 효소다이어트, 고기, 자몽, 달걀만 먹어야 하는 덴마크식 다이어트, 8시간 먹고 16시간 공복을 유지해야 하는 간헐적다이어트까지. 정말 너무 힘들었지 뭐야. 하지만 굶으면 굶을수록 배고픔의 고통은 심해져서 엄마 몰래 조금씩 먹었던 음식들은 오히려 폭식으로 이어졌었지. 힘들게 빠졌던 몸무게는 폭식으로 더 많이 늘어서 포기하게 되었어. 그 후로도 나는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반복하고 실패를 하다가 운동을 하고 싶어서 수영을 하게 되었어. 6개월간 배운 수영은 살은 빠지지 않았지만 충분한 동기가 되었어. 새벽 5시에는 수영을, 저녁에는 배와 다리에 랩을 두르고 열심히 뛰었더니 한달 만에 15kg 감량에 성공했지. 하지만 성취감에 무뎠진 나는 너를 잊고, 저녁 모임을 열심히 다녔어.

그 후로는 너를 잊고 지냈는데 2년 만에 나를 다시 찾아온 거야. 그래도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 나의 동반자일지도 모를 다이어트야. 앞으로는 무리하지 않고, 나는 너를 편안하게 건강하게 함께할 친구로 생각하려고. 우리 잘 지내보자. 그래도 건강을 위해 10kg는 좀 멀리 떠나줘.

그럼 종종 안부 물을게.



어두운 동굴을 터널로 만들어 준 친구에게

오래 전았던 슬픔이 터지듯이 비가 쏟아지는 초여름 밤입니다. 어와 소리를 배경 음악 삼으면서 지난 키트를 돌아봅니다. 물도 마음도 너털너털해진 채로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곳에서 작별을 고했지요. 그것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때는 고집 부리지 말라는 뜻이 특이 먼저 포기를 선언했고, 이후에는 시간의 흐름에 맡긴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사과는 대로 수술을 하고, 견인을 하고, 약을 먹으면서 날뛰는 가위를 이저지 못해 당황했지요.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둠 속에 있는 제게 늘 다정하게 사랑을 전하며 위로해주었습니다. 당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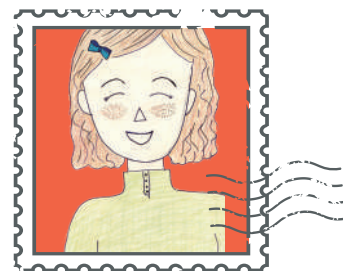
어떤 날은 우울함으로 무기력 했고, 어떤 날은 지난 시절 떠올라서 분노 했어요. 그럴 때마다 당신은 가장 가까워서 가장 먼저 손 내밀어 주었습니다. 괜찮다고. 지난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제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들로 진심을 담아 위로해 주었죠.

잘 먹지 못하고 위가 탈이 났을 때도 당신은 한 걸음에 달려와 저를 입원시켜주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솜씨는 없으니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사먹으라면서 두툼한 봉투를 전해주셨죠. 그러면서도 혹시나 한는 내 마음이 불편한 것까 아주 조심스럽게, 진심을 담은 눈빛으로 전해주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또 코로나 자가 격리 중일때도 죽을 사서 현관 문에 걸어두고 가셨지요. 먹고 잘 회복하라고 전화를 주시면서 영혼을 보지 못해 너무 안타깝다고 하셨지요.

낯피와 속상할 때, 딸아이의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을 때, 여동생이 속상하게 할 때 어김없이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과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 어느새 내 고민들은 가벼워지고, 그 속에서 답을 찾기도 했지요. 이야기가 끝나갈 때쯤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도 감사하다고.

당신을 통해 믿음과 신앙을 배웠고, 먼저 사랑하는 병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 안에 갇혀서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운동 머뭇볼이라 많이 보이지 않을 때도 당신은 늘 밝은 빛이 되어

1976년생



황숙현

어두운 동굴을 터널로 만들어 준 친구에게

위대한 양매추에게

‘있는 그대로 그림편지’에게

영덕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호적에는 76년생이지만, 토끼띠이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며, 책 사는 것도 좋아한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고민이 생겼을 때, 기분이 울적할 때 특히 책을 많이 읽는다. 그러다 고요하게 펼친 책 속에서 좋은 문장을 만날 때면 가슴이 뛰고 행복해지기도 한다. 책을 읽는 것이 어제보다 나은 삶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어두운 동굴을 터널로 만들어 준 친구에게

오래 참았던 슬픔이 터지듯 비가 쏟아지는 초여름 밤입니다. 비 오는 소리를 배경 음악 삼으며 지난 3년을 돌아봅니다.

몸도 마음도 너털너털해진 채로 아슬아슬하게 버텼던 저에게 작별을 고했지요. 그것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더는 고집부리지 말라는 듯이 몸이 먼저 포기를 선언했고, 이후에는 시간의 흐름에 맡긴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수술을 하고, 검사를 하고, 약을 먹으면서 널뛰는 기분을 어찌지 못해 당황했지요.

어떤 날은 우울함으로 무기력했고, 어떤 날은 지난 시간이 억울해서 분노했어요. 그럴 때마다 당신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둠 속에 있는 저에게 늘 다정하게 사랑을 건네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괜찮다고, 지난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제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들로 진심을 담아 위로해 주었죠. 잘 먹지 못하고 위가 탈이 났을 때에도 당신은 한걸음에 달려와 저를 입원시켜 주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솜씨는 없으니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사 먹으라면서 두툼한 봉투를 전해 주셨죠. 그러면서도 혹시나 받는 내 마음이 불편할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진심을 담은 눈빛으로 전해 주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또 코로나 자가 격리 중일 때에도 죽을 사서 현관문에 걸어 두고 가셨지요. 먹고 잘 회복하라고 전화를 주시면서 얼굴을 보지 못해 너무 안타깝다고 하셨지요.

남편과 속상할 때, 딸아이의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을 때, 여동생이 속상하게 할 때 어김없이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과, 그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어느새 내 고민들은 가벼워지고 그 속에서 답을 찾기도 했지요. 당신을 통

해 믿음과 신앙을 배웠고, 먼저 사랑하는 법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법도 배웠습니다.

내 안에 갇혀서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온통 어둠뿐이라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당신은 늘 밝은 빛이 되어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많은 시간동안 제 친구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단비 같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2023년 6월 11일

당신의 친구로부터



## 위대한 양배추에게

처음 만난 건 허여멀건 된장찌개 속에 있는 너였지.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물컹한 식감에 하얀색이라 먹고 싶지 않았어. 어머니의 시장 보파리에 싸여 꼬불꼬불한 길의 우리 집까지 온 너였지만 친해지기는 쉽지 않았지. 산골 마을에서 유일하게 읍내 향기가 나는 너였는데 왜 그랬을까?

이후로는 간혹 돈가스를 먹을 때 양념처럼, 꽃처럼 달려 나온 너를 만났어. 마요네즈라는 경이로운 세계를 보여준 것도 너였지.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많은 야채 중 하나였어.

그랬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나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정확히는 내 위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너뿐이었지) 너는 비로소 너의 위대함을 보여줬어. ‘항암식품’ 네 글자에 거의 모든 것을 맞추고, 관리하면서 잊고 있던 아버지가 생각났어. 나보다도 어린 나이에 위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말이야.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는 나에게 약한 ‘위’를 물려 주셨나 봐. 평소에도 예민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던 위는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나 봐. 먹지도 못하고, 먹으면 아프고 불편한 위를 쓰다듬으며 아버지를 생각했지. 그리고 너라도 조금씩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했어.

너의 고향에서는 너를 가난한 사람들의 의사라고 한다지?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깨달았지. 단단하고 알찬 속살에 가격까지 저렴하지만 효과는 훌륭한 너니까. 그렇게 너와 친해지면서 내 위도 조금씩 나아갔어. 아버지도 너를 일찍부터 오래 알았다면, 우리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을까? 얼굴도 모르는 동생들에게 아버지의 얼굴만은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위대한 양배추야!

너와 오래 친하게 지내서 아버지가 살아보지 못한 시간들을 아이들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가볼게. 언제까지나 나와 친하게 지내자! 내가 너에게 싫증나지 않도록 도와줘. 오늘도 장바구니 속 무거운 존재감을 뽐내는 너를 소중히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 봐. 내 시간들을 잘 살아갈 거라고 너에게 다짐이라도 하듯이.



## ‘있는 그대로 그림편지’에게

‘있는 그대로 그림편지’ 라는 수업!

그림에 기억도 모르는 나는 ‘있는 그대로’에 큰 의미를 두고 너를 만났어.

글, 그림 선생님이 봐 주신다고 하니 그 말을 한번 믿어보려고.

첫 시간 가졌던 긴장과 다르게 수업 분위기는 편안했어. 그래서일까 함께하신 분들은 자신의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꺼내셨지. 살아왔던 시간만큼 다양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지신 분들이었어. 수줍지만 아름답고, 뭉클한 이야기들 말이야. 그 분들의 글과 그림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어. 하지만 나는 그러질 못했어. 잘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는 게 어려웠거든.

다행히 그림 선생님은 자유롭고 섬세하신 분이셨어. 각자가 가진 보석을 발견하시고,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해 주셨지. 글 선생님은 지적인 분위기에 상냥한 눈웃음이 매력적인 분이셨어.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을 잘 잡아내신다고 할까? 선생님이 손을 보신 글은 분명 내 글이지만 한층 고급스럽고 자연스러워졌지.

내 옆 짝꿍이 되신 할머니는 얼마 전에 한글을 깨치셨다고 하셨어. 그래서 인지 할머니의 글씨는 바르고 정직했어. 처음으로 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다며 감격스러워하셨지.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림편지’ 너를 만나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어. 무심한 듯 다정하게 건네는 그림 선생님의 말씀에 혼자 울컥 하셨다고 고백하셨지. “그동안 얼마나 참으셨을까?”라는 말에.

그림 그리기는 힘들고, 글을 쓰는 것도 부담스러웠지만 너를 만나서 나는 나를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 남들에게 못하는 모습을 지독하게 보이기 싫어하고, 선생님의 작은 칭찬에도 크게 기뻐하는 나를 발견했거든. 그리

고 누구에게 편지를 쓸까 떠올리면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깨달았단다.

‘있는 그대로 그림편지’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게 해 주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만들어 줘서 고마워. 지금 이 시간도 지나버리면 빛바랜 편지처럼 아련해지겠지만, 지금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살아갈게.





권종희

길가다 토끼풀은 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세 잎, 네 잎, 다섯 잎 큰토끼풀을 매일매일 뜯는게 즐거운 사람입니다.

최씨 집안은 아니지만 셋째 딸입니다. ㅋㅋ

나와 똑같은 큰아들 (8세)과 남편과 똑같은 작은 아들 (6세)과 한글단콩  
제대로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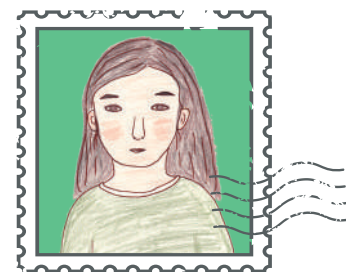
이십 대는 반강은 좋아했었는데 사십 후반으로 가니 큰죽이 좋아합니다.

하고 싶은게 참 많고 시작은 참 쉽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날은 행복이라 생각하며 지내보려고 합니다.

그림책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1977년생



권종희

내 어린 시절의 기억, 내 친구 미라에게

아카시향 가득한 토끼풀에게

나의 영어에게

길을 걷다 토끼풀을 발견하면 그냥 못 지나간다. 세 잎, 네 잎, 다섯 잎의 토끼풀을 찾는 게 즐겁다. 나를 닮은 여덟 살 큰아들과 남편을 닮은 여섯 살 작은 아들과 영덕에서 살고 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아 시작을 잘하는 편이며, 아이들과 함께 하는 날을 행복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 내 어린 시절의 기억, 내 친구 미라에게

미라야,

잘 지내고 있지?

실은 너의 전화번호도 알고, 카톡 프로필도 가끔씩 보는데 선뜻 연락하진 못했어. 그렇게 벌써 30년이 넘었네. 미라 네가 병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고 있다는 건 정미에게 전해 들었는데, 그때마다 너를 만나고 싶었지만, 또 역시 연락 한 번 하지 못했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또렷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네가 전학을 갔었던 건 분명하게 기억나.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서운했었던지 너에게 꼭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었거든. 그래서인지 마음의 빗처럼 편지를 쓰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 했을 때 네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

나는 아주 재미나게 살고 있어. 장난꾸러기 아들이 둘이나 있거든. 사는 곳은 고향 근처야. 우리가 예전에 살았었던 동네는 오일장이 섰었던 큰 동네였는데, 많이 달라졌더라. 유일한 식당이었던 자장면 집에 불이 나 사라지고, 낡은 집은 부서지고, 마을회관은 새로 지어졌고, 네가 살았던 집, 다행히 그 집(일미식당)은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그대로 남아 있어. 그곳을 지날 때마다 네가 제일 먼저 떠올라.

지금까지 연락을 못했던 건 그때의 그리움을 간직하고 싶어서였을까.

나의 단짝이었던 친구야 보고 싶다. 전화하면 반갑게 받아줘.

곧 보자. 내가 달려갈테니.

2023년 6월 13일

멀지도 않은 영덕에서 희가



## 아카시향 가득한 토끼풀에게

매일 아침 만나는 토끼풀아.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 늘 설레어.  
하루를 온전하게 다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너를 만나러 가는 게  
나의 일상이거든. 너는 같은 모습인 듯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어.

잎이 더 많이 생겨 있기도 하고, 색도 조금씩 달라져 있기도 하고,  
어떨 땐 벌레가 갉아먹어 초라해 보이기도 했어.

한번은 너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카시아 향이 나는 거야.

정말 깜짝 놀랐지.  
왜 행복한 앞은 세 앞이고,  
행운의 앞은 네 앞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나는 매일 너에게 행복과 행운만 찾으려고 했거든.  
너에게 그렇게 예쁜 향기가 나는 줄 몰랐지.

무엇을 찾고 쥐는 게 행운이 아니라  
그냥 너를 알고 바라보는 그 순간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어.

토끼풀아,  
매일 그 자리에 있어줘.  
같은 모습인 듯 다른 모습인 너를 매일 찾아갈게.





## 나의 영어에게

I'm Jay. Nice to meet you.

내가 너에게 인사말을 할 수 있는 영어는 여기까지야.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30년 넘게 접하며 살았는데,  
나는 중학교 1학년 첫 영어 수업에 머물러 있어.

나의 첫 영어 선생님은 매일 영어 단어 시험을 봤어.  
그때는 멋모르고 열심히 했는데, 중간에 선생님이 바뀌면서  
나는 너의 손을 놓고 말았단다.

그러다 2년 전부터 영어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어린이 영어를 봐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

영어 공부 머리는 없는 걸까?  
공부하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내가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일까?  
이거 궁금하다 접고, 저거 조금 하다가 쉬고, 너무 어려운 게 영어야.

나의 새해 목표 1 순위에는 항상 영어 너가 있는데,  
나는 늘 시작도 못해(어느덧 7월).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해보려고.

남은 5개월 동안 매일 10개씩 단어를 외워볼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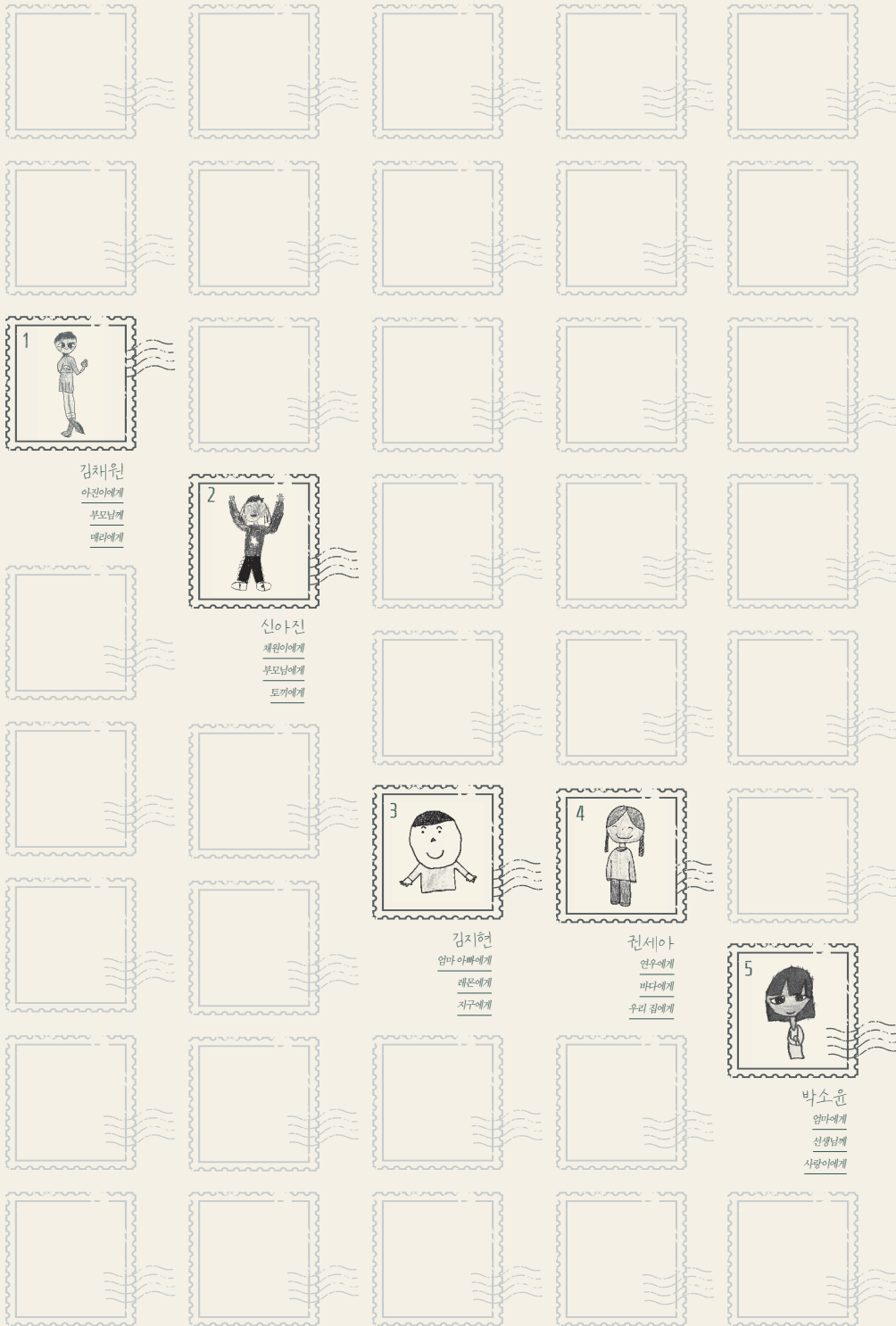
매일 10개라고 우습게 보는 건 아니지?

5개월이면 1500개의 단어를 알게 되니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같아.  
1년이면 3650개야.

내년에 또 너에 대한 목표를 세우겠지만,  
거북이처럼 느리게 걷더라도 슈퍼거북이가 되어 볼게.

Slow and steady will get you what you want to do!





저는 김채원입니다. 나이는 여덟 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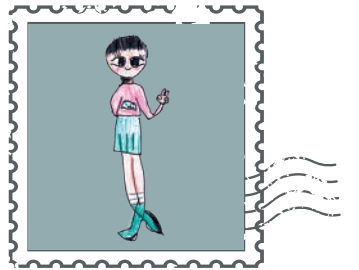
좋아하는 동물은 강아지입니다.

꿈은 아티스트입니다.

좋아하는 건 동물입니다.

싫어하는 것은 벌레입니다.

8세



김채원

아진이에게

부모님께

매리에게

저는 김채원입니다. 나이는 여덟 살입니다.  
좋아하는 동물은 강아지이고, 꿈은 아티스트입니다.  
좋아하는 건 동물이고, 싫어하는 것은 벌레입니다.



아진이에게

안녕? 아진아.

너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너와 더욱 친해지고 싶어서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친하게 지내자.

1학년 때에는 같은 반이 아니지만,

2학년 때에는 반도 바뀌고 하니

2학년 때에는 꼭 같은 반이 되자.

아진아, 사랑해.

내 생일 금요일(이번주)에 초대할게

2023년 5월 30일

채원이가



## 부모님께

엄마 아빠, 제가 이거 한다고 했다가,  
저거 한다고 했다가 그렇게 해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했어요.  
이번에는 말 잘 들어볼게요.  
한마디 더 할게 있는데, 친구에게도 잘 대해 볼게요.  
엄마 아빠 절 낳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채원 올림



## 매리에게

매리야, 농장에서 소를 지켜줘서 고마워!  
그리고 네가 새끼를 낳아서 난 너무 기뻐.  
새끼의 이름은 밀키, 초코, 우유, 몽실이, 구름이, 푸름이!  
모두 다 사랑스럽고 예뻐!  
매리야! 나이가 들어도 아프지 말고,  
나와 함께 쪽 가줘! 그럼 난 너무 행복할 거야.  
매리가 나중에 무지개다리를 건넌다 해도 나는 너를 기억할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랑해.



저의 이름은 신아진 입니다  
 나이는 8살 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멜론이고 좋아하는 동물은 토끼 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게임입니다 꿈은 요리사 입니다  
 그리고 외동이고 사촌이 많습니다 그리고  
 야성초등학교에 다닙니다.



신아진

채원이에게

부모님에게

토끼에게

저의 이름은 신아진입니다.

나이는 여덟 살이고 야성초등학교에 다닙니다.

외동이지만, 사촌이 많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멜론이고, 좋아하는 동물은 토끼입니다.

그림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게임입니다.

저의 꿈은 요리사입니다.



## 채원이에게

안녕? 채원아.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와 더욱 친해지고 싶기 때문이야.  
우리 이제부터 더 친하게 지내자.  
채원아 사랑해. 그리고 생일 축하해.

2023년 5월 30일  
아진이가



##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2023년 6월 13일  
아진 드림



## 토끼에게

토토야, 나 아진이야.  
 우리 동물농장에서 만났었지?  
 나는 너에게 이름도 지어 주었지. 토토라고 말이야.  
 너는 모두 모두 귀여웠어.  
 귀도 짧고 엉덩이까지도 귀여웠지.  
 난 너와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나.  
 당근 먹이도 주고, 넌 정말 사랑스러웠어.  
 토토야, 난 너가 다시 보고 싶단다.  
 널 다시 만나면 잘 키워주고 싶단다.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자.  
 나중에 잊어버리더라도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토토야, 사랑해.



저의 꿈은 요리사입니다.  
저는 빵을 만드는 제빵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영덕야성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8세



김지현

엄마 아빠에게

레몬에게

자구에게

저의 꿈은 요리사입니다.

저는 빵을 만드는 제빵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영덕야성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저 지현이에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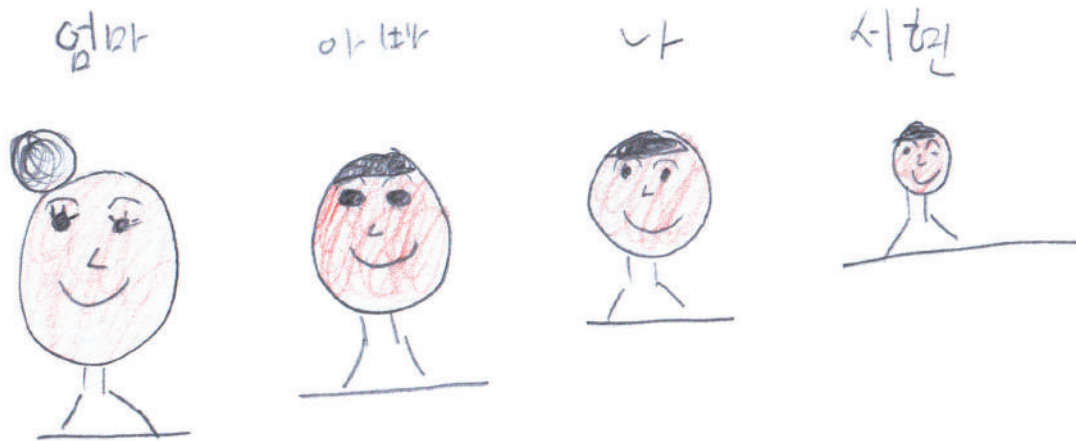
엄마는 요리를 잘해서 좋아요.

아빠는 저한테 수학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지현이가





레몬에게

레몬아 안녕.

난 지현이야.

난 너를 좋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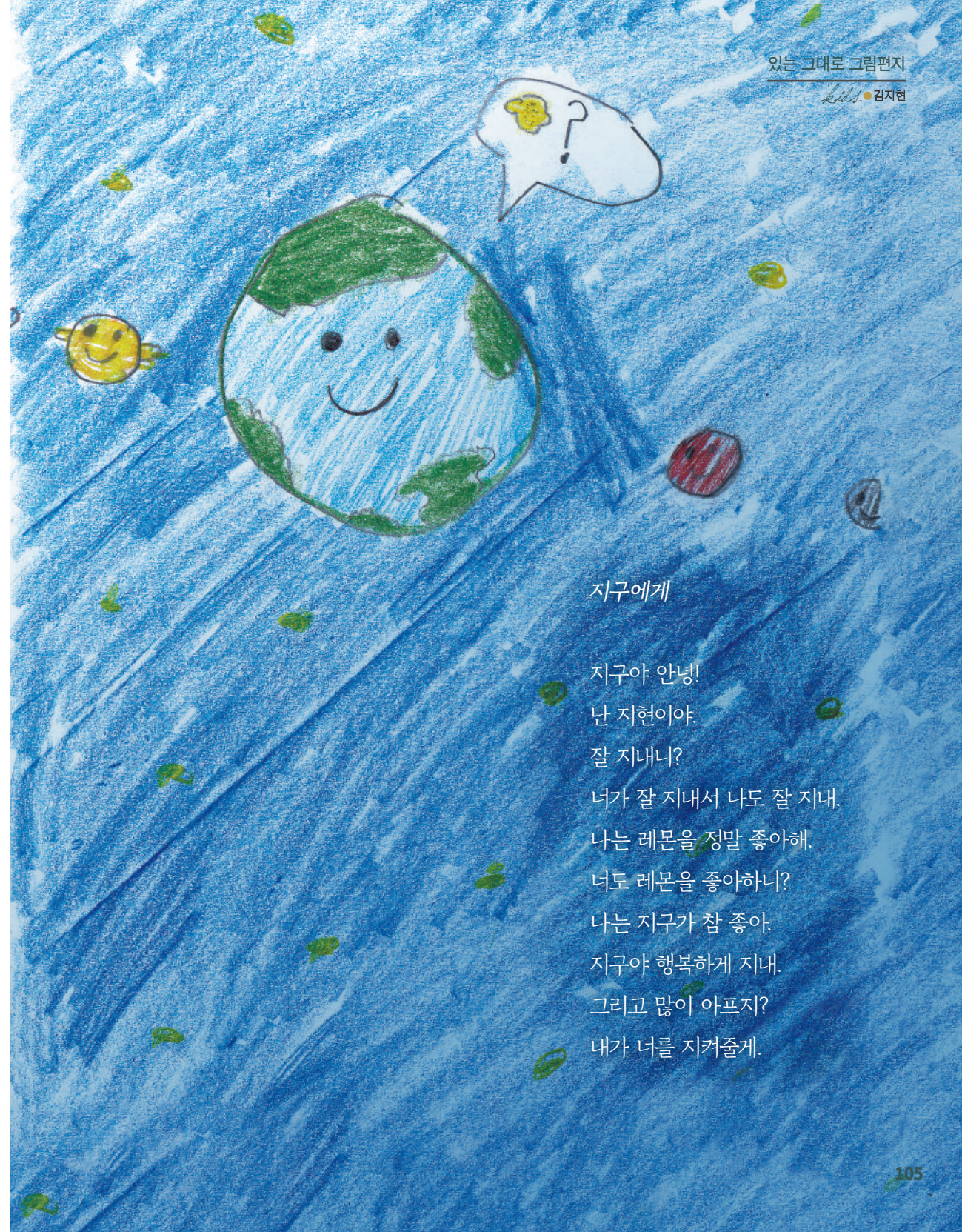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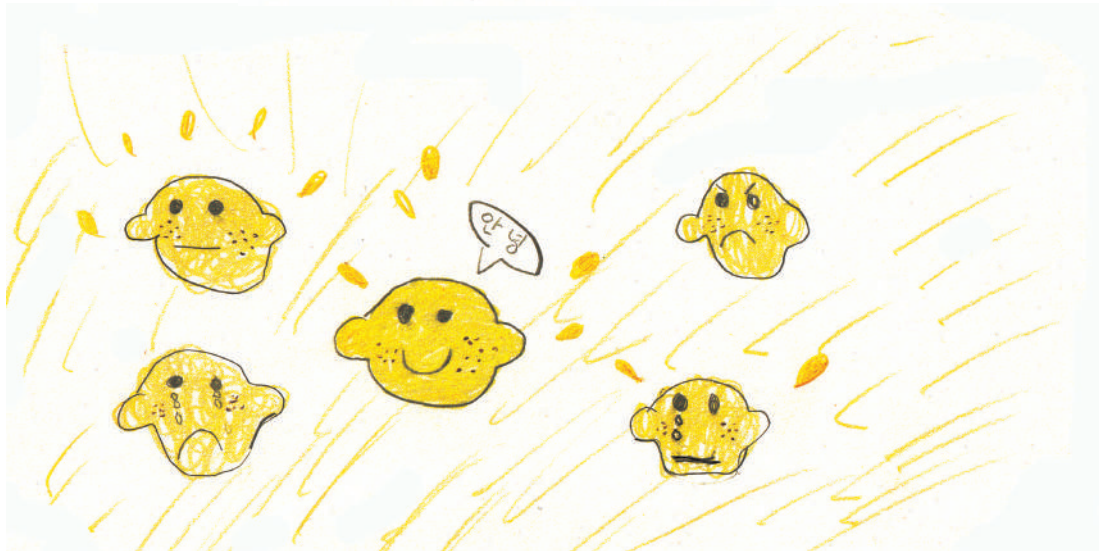
넌 새콤하고 달콤해서 좋아.

항상 새콤하고 달콤하게 살아!

2023년 7월 11일

레몬을 좋아하는 지현이가

레몬에게



지구에게

지구야 안녕!

난 지현이야.

잘 지내니?

너가 잘 지내서 나도 잘 지내.

나는 레몬을 정말 좋아해.

너도 레몬을 좋아하니?

나는 지구가 참 좋아.

지구야 행복하게 지내.

그리고 많이 아프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나는 장래희망이 두 개입니다. 배드민턴 선수, 웹툰 작가입니다.  
왜냐하면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마라탕입니다. 새우는 싫어하지만, 새우튀김은 좋아합니다.  
저는 강아지도 좋아합니다. 만들기를 좋아하고 웃긴 것도 좋아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것은 가족입니다. 저는 웃긴 것도  
좋아합니다.

9세



권세아

연우에게

바다에게

우리 집에게

저는 장래희망이 두 개입니다. 배드민턴 선수, 웹툰 작가입니다.  
왜냐하면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색깔은 하늘색과 노란색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마라탕입니다. 새우는 싫어하지만, 새우튀김은 좋아합니다.  
저는 강아지도 좋아합니다. 만들기를 좋아하고 웃긴 것도 좋아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것은 가족입니다.



## 연우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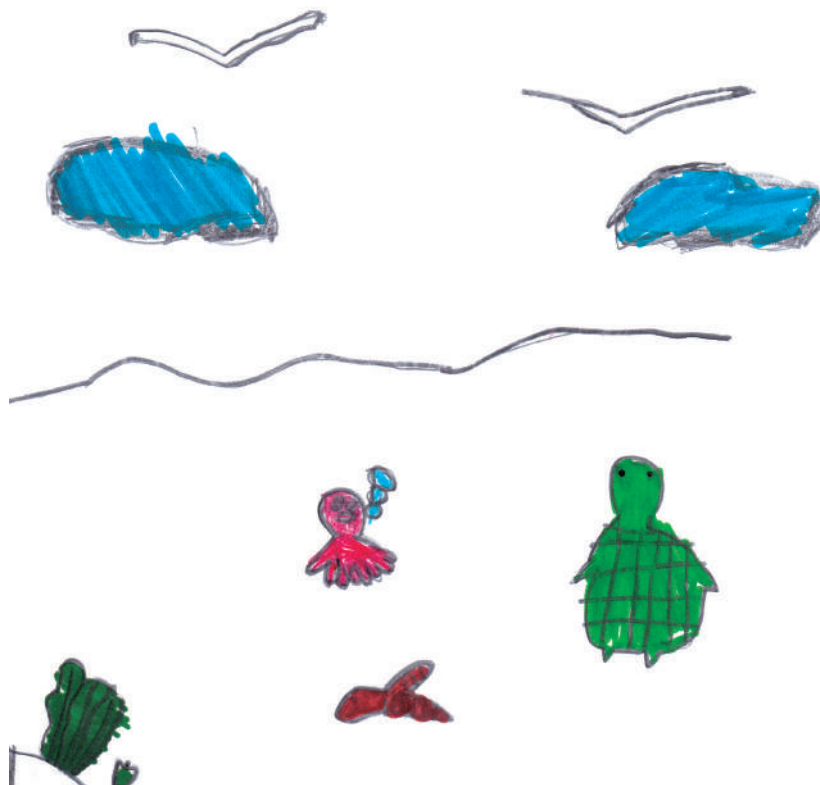
안녕, 나 세아야. 우리 1학년 때 엄청 친했잖아.  
 그래서 때로는 껌딱지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연우 네가 좋아.  
 너랑 이야기하면 같은 이야기인데도 너무 재미있어.  
 그러다보니까 이야기를 끊지 못할 때도 많았지.  
 너는 계속 무언가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  
 다른 친구랑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수업시간에는 앞에 보고 선생님 말 잘 듣자(속닥속닥).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자.

2023년 5월 30일  
 세아가



## 바다에게

안녕, 바다야.  
 바다야, 너는 유리창처럼 반짝이고, 차랑차랑해서 너무 예뻐!  
 그런데 그런 바다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마구 버리게 해서 미안해.  
 할아버지와 바다에 갔을 때  
 라면봉지 같은 다른 쓰레기가 많아서 주워 담았던 적도 있어.  
 바다야 그런데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어 주어서 고마워.  
 나는 너랑 항상 놀고 싶어. 그럼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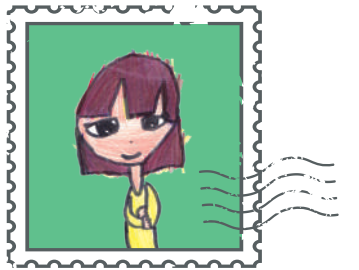
## 우리 집에게

안녕? 우리 집!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줘서 고마워.  
 나도 너를 보호해 주고 싶지만,  
 나는 몸이 너보다 100배는 작아.  
 그래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대신 청소를 열심히 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고 울고 싶을 때  
 나를 잘 숨겨줘서 고마워.  
 내가 혼자 있었던 날 너무 무서웠는데,  
 집에 있을 수 있어서 그래도 괜찮았어.  
 나도 네가 힘들 때 소원 빌어줄게.  
 보름달이 뜰 때 말이야.  
 우리 집아, 나와 우리 가족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줘서 고마워.  
 그럼 안녕.



나는 이렇게 해요.  
 마음이 아파도 마음이  
 기뻐도, 기분은 똑같습니다.  
 나는 변해도 마음은 똑같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어도 머리가 나빠도  
 내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병원에 가도 내  
 마음은 똑같습니다. 내 마  
 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난  
 내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난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주인이니까요.

9세



박소윤

엄마에게

선생님께

사랑이에게

나는 이렇게 해요. 마음이 아파도 마음이 기뻐도 기분은 똑같습니다.

나는 변해도 마음은 똑같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어도, 머리가 나빠도

내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병원에 가도 내 마음은 똑같습니다.

내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난 내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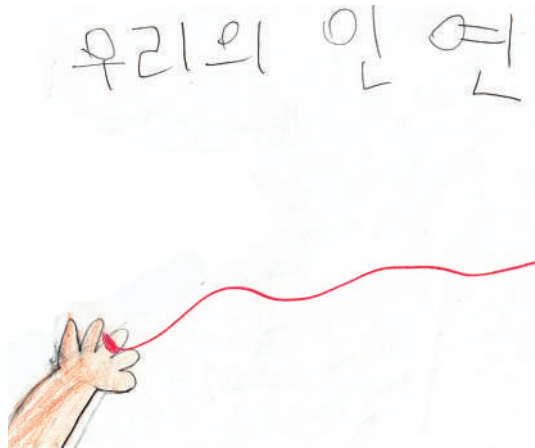
난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주인이니까요.



## 엄마에게

엄마 나 소윤이에요.  
 엄마는 나를 사랑해요.  
 마찬가지로 나도 엄마를 사랑해요.  
 우리 사랑은 따뜻하고 폭신평신했 거고,  
 반들반들할거예요.  
 우리는 엄마를 좋아해요.  
 엄마는 내 엄마이고,  
 아빠는 내 아빠예요.  
 가족이니까 인연이 이어져있으니까,  
 줄은 안 끊어져요.

2023년 5월 30일  
 소윤이가



## 선생님께

선생님, 선생님 있잖아요.  
 선생님은 왜 저희에게  
 수학, 통합국어, 창체, 안생을 다 배우게 해주요?  
 저희가 나중에 잘못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건가요?  
 너무 궁금해요.  
 생각나면 말해줘요.

2023년 7월 11일  
 소윤이가

저희 쌤은 남자인데서  
 자이언트맨해요♡



# 사랑이에게

사랑아, 나는 네 주인이야.  
 사랑이는 갈색 털이 있고,  
 작고 귀여웠어.  
 마당에 살고 있었지만, 항상 옆에 있는 것 같았어.  
 마치 가장 친한 친구처럼 말이야.  
 나를 보면 언제나 반가워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지.  
 그러던 어느날 족제비 같은 야생동물에게 물려  
 오래 살지 못해서 나는 너무 슬펐단다.  
 지금 강아지 하늘나라에서 잘 살고 있니?  
 나중에 다시 태어난다면  
 내 동생, 아니면 내가 결혼해서 낳을 아들딸로 올 수 있겠니?  
 나는 정말 너가 많이 보고 싶어.  
 너를 오래도록 기억할게.  
 사랑해 사랑아.



나의 꿈이 요리사다. 음식을 맛있게 해 주  
서다. 맛있게 하면 좋게다. 그리고 다 팔  
고 있으면 좋게다. 좋아하는 음식은 버섯  
입니다. 싫어하는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좋아하는  
동물은 강아지입니다. 싫어하는 동물은 꿀벌  
입니다. 또 좋아하는 동물은 토끼입니다.  
싫어하는 색은 검정색입니다. 좋아하는 색은 핑크색  
이랑 노랑색이랑 마지막색은 주황색입니다.



김리하

엄마께

모카에게

별에게

저의 꿈은 요리사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요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음식이 다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버섯이고, 싫어하는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좋아하는 동물은 강아지와 토끼이고, 싫어하는 동물은 꿀벌입니다.

싫어하는 색은 검정색이고, 좋아하는 색은 핑크색, 노랑색, 주황색입니다.



## 엄마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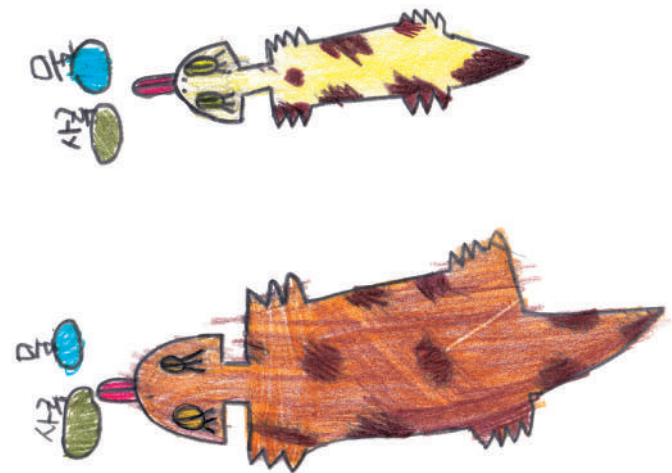
엄마 안녕하세요. 저희를 9년 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할 때 혼날 때도 있지만, 요리도 해 주시고,  
 공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도 못가고 저희를 키우면 힘들 것 같아요.  
 학교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공개수업도 와 주시고,  
 컴퓨터도 도와주시고,  
 영어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요.

2023년 6월 11일  
 리하가



## 모카에게

엄마가 모카 너를 포항에서 데리고 왔을 때,  
 커피색이어서 이름을 모카라고 지었어.  
 나는 너를 만져보고 싶었지만,  
 조금 겁이 나서 손에 올려놓기만 했어.  
 근데 굉장히 푹신푹신했어.  
 너랑 친해지기도 전에 엄마가 네 친구를 또 데리고 왔지.  
 아, 새 도마뱀 이름은 크림이야.  
 근데 그 친구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아직 모르겠어.  
 만약 여자라면 너네 둘이 결혼하면 어떨까?  
 그래서 뽀얀 알도 낳고 귀여운 새끼도  
 태어나면 좋겠어.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자. 알았지?





## 별에게

별아 안녕?

너는 밤에 반짝반짝하고 너무 예뻐.

별은 쌍둥이자리도 있고, 오리온자리도 있고,

또 예쁜 달도 있어서 정말 잘 어울려.

달은 아침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대단해.

밤에는 별이 작고 귀여워.

요즘 밤하늘에 별이 안 보여.

별이 한 개 아니면 두 개만 보여.

많이 보여야 내가 정말 기쁘고 마음도 편안해져.

요즘 많이 안보여서 조금 속상했어.

이제 많이 보여줘야 해. 알겠지?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종이접기입니다. 그리고 저의 취미는  
동물 키우기입니다. 제가 키우는 것은 크레  
스티드 게코도마뱀이고 종류는 트라이컬러  
익스트림 할리퀸입니다. 그리고 저의 꿈  
은 사육사입니다. 왜냐하면 사육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동물들을 잘 키우고 동물  
아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커서  
사육사가 될 것입니다.

9세



김도하

엄마께

자구에게

블랙홀에게

저는 김도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종이접기입니다.

저의 취미는 종이접기와 동물키우기입니다.

저는 크레스티드게코 도마뱀을 키우고 있고, 종류는 트라이컬러 익스트림 할리퀸입니다.

저의 꿈은 사육사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좋아하고 아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커서 꼭 사육사가 될 것입니다.



엄마께

엄마 안녕하세요. 김도하예요.

저를 9년 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쌍둥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 때 밥을 먹여 주셔서

우리 쌍둥이들이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항상 요리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네요.

엄마 항상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시지 말고, 계속 살아주세요.

사랑합니다.

2023년 5월 30일

김도하 올림

엄마 아빠가 행복하길래



### 지구에게

지구야, 안녕?

나 도하야. 네가 없었다면 난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네가 있어서 살았어. 네가 있으니 너무 너무 좋아.

내가 2015년생인데, 네가 빨리 멸망하면 안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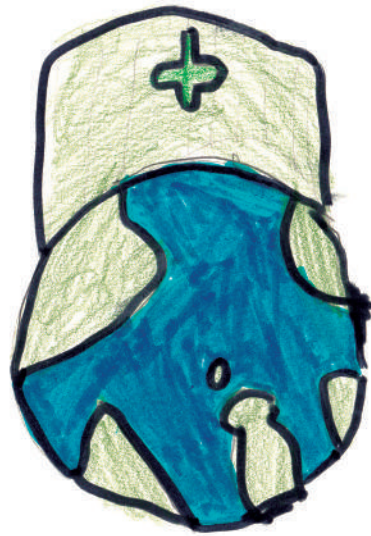
왜냐면 네가 없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사라질 거야.

뉴스에서 봤는데, 지구가 더 뜨거워져서는 안 된대.

계속 살아줘서 고마워. 나도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지 않을게.



아픈 지구



건강한 지구

### 블랙홀에게

블랙홀아, 운석을 빨아들여 줘서 고마워.

네가 폭발로 태어났다고 들었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었던 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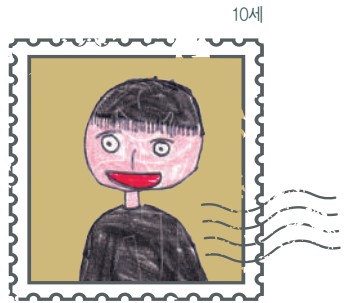
폭발로 운석이 날아들어 공룡들이 멸종됐잖아.

만약 지금 그런 날이 온다면, 내가 물리쳐 줄게.

만약 블랙홀이 있다면 나는 너한테 가고 싶어.

왜냐면 빨려들어 가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기 때문이야.

저는 최지용입니다 저는  
축구를 취미로 맘애했고  
특기는 때리면 옆에치기  
하고 꿈은 유튜버입니다  
친구랑 같이 그리고 음식은  
안 좋아 하는게 없고  
전부 좋아합니다



최지용

이대환에게

나무에게

화가 많은 번개에게

저는 최지용입니다. 저는 축구를 취미로만 좋아합니다.  
특기는 때리면 옆에치기를 할 수 있고, 꿈은 유튜버입니다.  
음식은 안 좋아하는 게 없이 전부 좋아합니다.



이대한에게

대한아 나 지용이야.  
전에 내가 심심할 때 같이 축구해 줘서 고마워.  
나는 네가 슛을 찰 때 가장 긴장돼.  
하지만 결국은 내가 막아서 휴우! 하고 한숨이 났지.  
그리고 내가 슛을 찰 때 네가 실수를 하면  
내가 엄청 좋아하잖아. 그럴 때 너는 땅을 걷어차고! ㅋㅋ!  
우리 더 친하게 지내자.

2023년 5월 30일  
지용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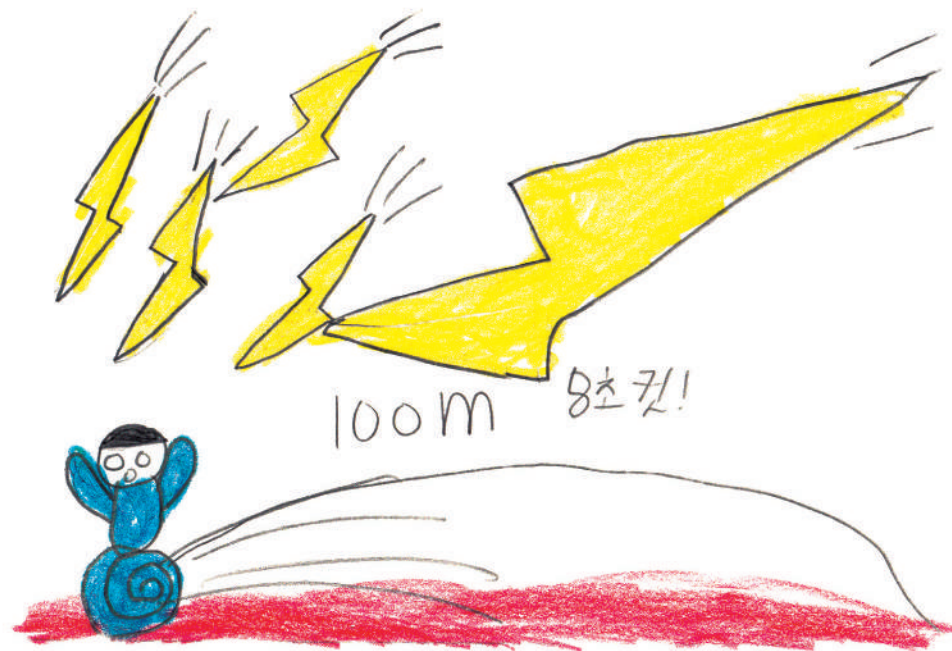


### 나무에게

나무야 너는 정말 고마운 존재야.  
 왜냐하면 너는 이산화탄소를 삼켜서  
 좋은 공기를 만들어 주니까.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내어 주고,  
 곤충들에겐 쉼터를 만들어 주잖아.  
 그런데 요즘 나무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  
 그래서 공기도 나빠지고,  
 나는 나무를 많이 심을 거야.  
 특히 참나무를 많이 심어서 장수풍뎅이를 만날 거야.

### 화가 많은 번개에게

번개야 안녕?  
 나는 최지용이야. 너는 정말! 왜 매번 우르르광광하고  
 큰 소리를 치는 거니? 하늘에서 화가 나는 일이 있니?  
 짜증나는 일이 많니?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람들을 놀래키니?  
 네가 우르르광광하고 번개를 쳤을 때, 나 정말 놀랐잖아.  
 뭐 좀 신기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무섭지는 않았어.  
 그래도 이번에는 좀 살살 쳐 줄래?  
 화가 나도 살짝만! 그래야 무지개 친구가 놀러오지.



제 이름은 임선미 입니다.

저는 영덕야성초등학교에 다녀요.

저의 장래희망은 뉴스 기자입니다.

저는 엄마, 아빠, 오빠와 함께 살아요.

제가 키우는 애완동물은 앵무새예요. 저는 2마리의 앵무새를 키워요.  
이름은 노랑이랑 초록이에요요.

저는 피아노 학원, 영어학원에 다녀요.

영어학원은 1년 째 다니고 있고, 피아노 학원은 4년 다니는 중이에요요.

제가 싫어하는 음식은 계란입니다.

저는 대부분 10시반에 자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파라탕, 햄버거, 젤리, 빵 입니다.

이상 제 소개를 끝내겠습니다.

11세



임선미

부모님께

나의 핸드폰에게

귀여운 노랑이, 초록이에게

제 이름은 임선미입니다. 저는 영덕야성초등학교에 다녀요.

저의 장래희망은 뉴스기자입니다. 저는 엄마, 아빠, 오빠와 함께 살아요.

저는 두 마리의 앵무새를 키웁니다. 이름은 노랑이와 초록이에요요.

저는 피아노학원, 영어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영어학원은 1년 째 다니고 있고, 피아노학원은 4년 째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음식은 계란이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햄버거, 젤리, 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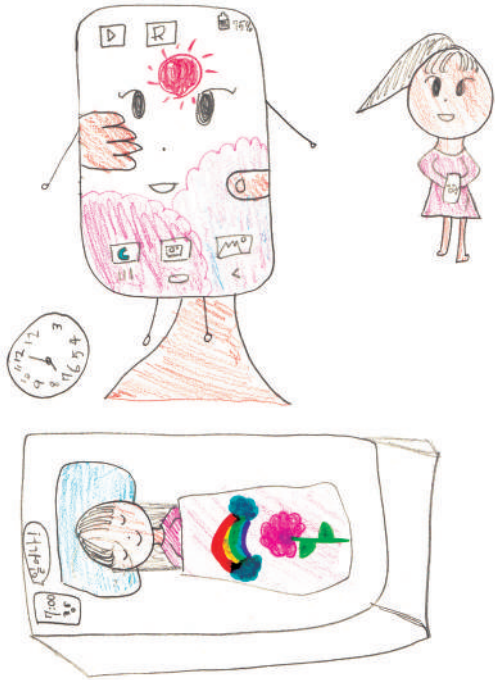
### 부모님께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저 선미예요.  
 저를 낳아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매일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는 다른 부모님들보다 최고의 존재예요.  
 제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엄마, 아빠께 이처럼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아빠, 엄마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서 죄송해요.  
 이제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이만 편지를 끝낼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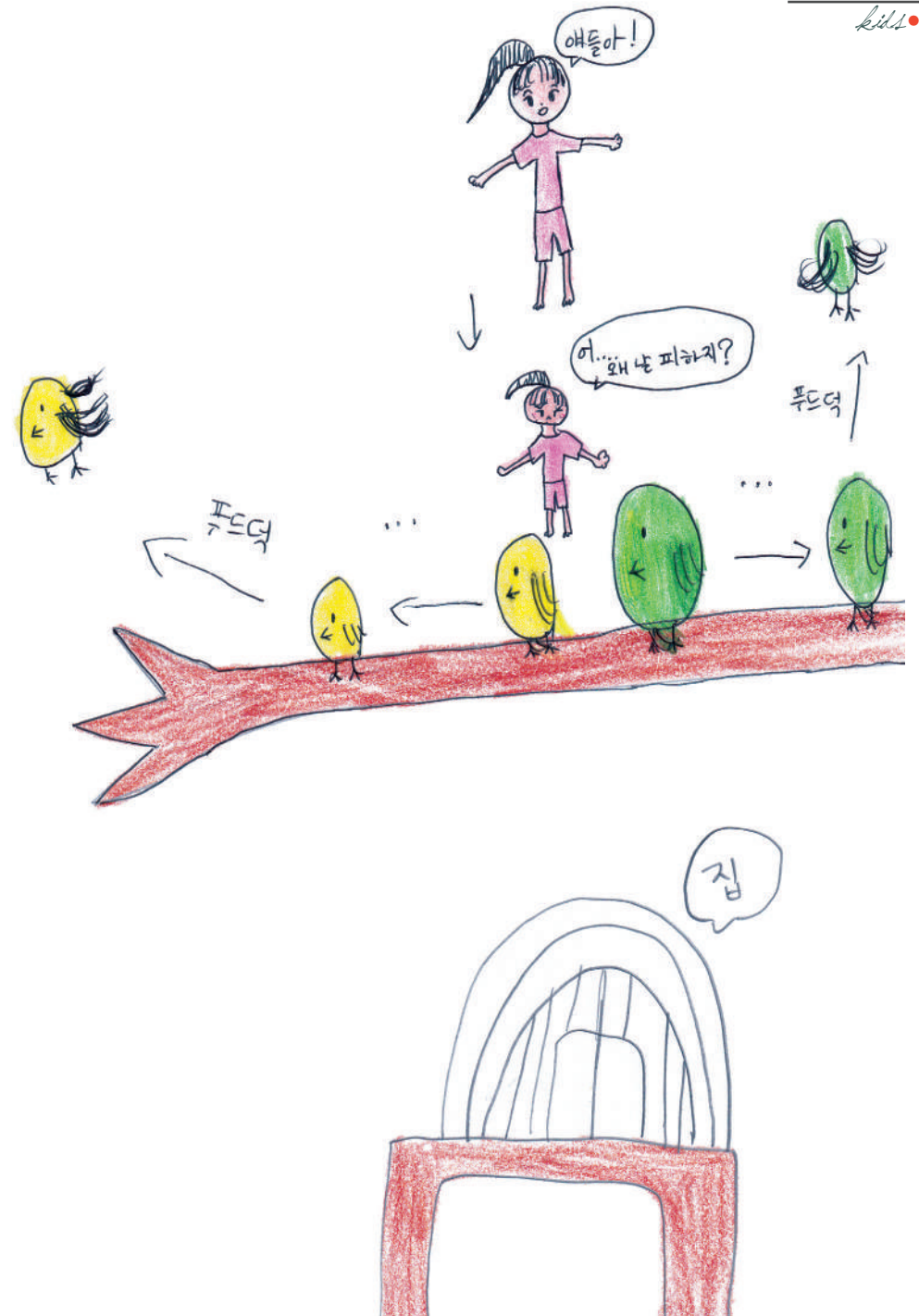
### 나의 핸드폰에게

안녕, 나 선미야.  
 널 데려왔을 때가 8살 때였는데,  
 벌써 내가 4학년이라니...  
 그래서인지 게임할 때 렉도 많이 걸리고 속도가 많이 느려졌어.  
 그래서 곧 다른 애를 데려와야 할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너를 중학생이 될 때까지 사용할 거야.  
 너무 정들어버린 걸 어떡해!  
 내가 너를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의심하지 마.  
 나중에는 더 많이 필요할거니까 고장나지 말고!  
 우리 쪽 함께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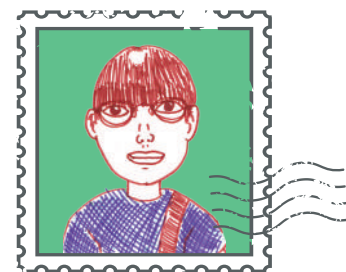
### 귀여운 노랑이, 초록이에게

애들아, 안녕 나 선미언니(누나)야. 너희가 자꾸 나를 피해서 서운해.  
 난 너희한테 밥도 주고, 물도 갈아주고, 너희를 참 좋아하는데…….  
 계속 날 피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난 너희한테 잘 대해 준 것 같은데 예전처럼 나랑 놀면 어때니?  
 앞으론 너희들도 내가 잘 대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한테도 잘 대해죠. 항상 사랑해.



안녕하세요. 영덕야성 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박유솔입니다.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중 만화책 읽는 것을 최고로  
좋아합니다. 어떨때엔 그림이 너무 웃겨서  
실실 웃기도 해서 엄마아빠가 "왜 저러지?"하  
시기도 합니다. 엄마아빠께서 제그림을  
보시며 칭찬을 해주십니다. 물론 아닐때  
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그림그리는걸  
좋아 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완전 없을 때 시간을 보내기도 쉽고, (아, 이런  
알잖은가?) 그림실력도 늘고, 재미도 있기 때문  
입니다. 그리던 그림을 다 그리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도 전 가족이 가장 좋습니다.  
가족이 있어야 제가 살거든요.

12세



박유솔

엄마 아빠께

우리 집 도마뱀들에게

드래곤볼에게

영덕 야성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박유솔입니다.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중 만화책 읽는 것을 최고로 좋아합니다.

어떨 땐, 그림이 너무 웃겨서 실실 웃기도 해서 엄마 아빠가 "왜 저러지?" 하시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는 제 그림을 보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물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림을 그리면 시간을 보내기도 쉽고,

그림 실력도 늘고, 재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던 그림을 다 그리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도 전 가족이 가장 좋습니다. 가족이 있어야 제가 살거든요.



## 엄마 아빠께

엄마 아빠께 죄송했던 일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지난번에 아빠께서 놀러가자고 하시고  
 엄마께도 같이 갈 것이냐고 물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엄마께서 제게 먼저 물어 보셨습니다.  
 빨리 올거냐, 늦게 올거냐라고요.  
 엄마께 빨리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늦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해 놓고서 생각으론 엄마가 함께 가신다면  
 제가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그때 엄마 얼굴이 생각났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제게 맛있는 음식을 해 주시고,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하고 축복해요. 아빠께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많이 놀러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요리들을  
 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6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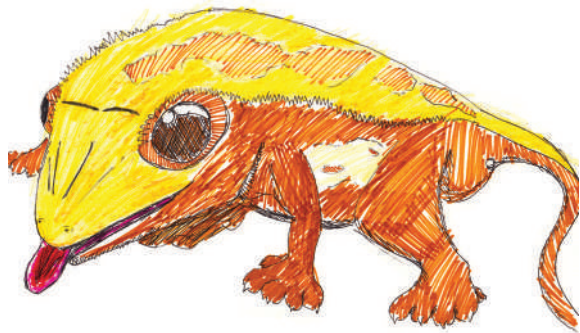
엄마, 아빠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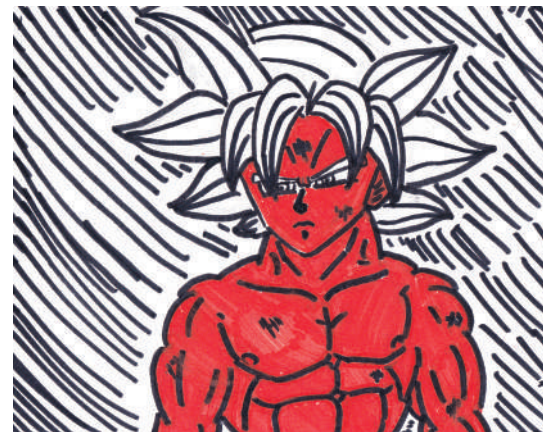
## 우리 집 도마뱀들에게

안녕, 코돌이랑, 애기야!  
 난 너희를 키우는 사람인데, 너네한테 편지를 쓰는 건 처음이네.  
 너희는 내가 어떻다고 생각하니?  
 가끔씩 내가 책상을 쿵쿵 치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놀라지는 않았니?  
 그리고 너희가 먹는 음식은 어떤 맛이니? 찹까? 달까?  
 너희 집은 편하니? 편했으면 좋겠다.  
 요즘 보니 허리를 돌리는 이상한 자세를 하고 있던데,  
 어떻게 하는 거니? 신기하더라.  
 그리고 너희들은 눈도 푹망푹망하고, 헛바닥도 쫓득하고.  
 나는 너희들이 점점 자라는 것을 보는 게 행복해.  
 그런데 밥 좀 많이 먹어 줘. 부탁이야.  
 우리 오늘도 내일도 친하게 지내자. 건강하게 자라 줘.



## 드래곤볼에게

안녕, 드래곤볼아! 나는 너를 읽는 사람인데,  
 아주 재밌게 잘 보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니?  
 내가 처음에 너를 읽고 나서 한두 달에 걸쳐  
 전권을 모두 구매했는데, 스토리 전개가 이상하고,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너무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뒤로 갈수록 스토리가 너무 재미있어지고,  
 마음에 들어서 계속 읽었던 것 같아.  
 지금 드래곤볼 슈퍼는 20권까지 나왔던데,  
 21권은 언제 나오니? 빨리 나오면 좋겠다.  
 어떨 땐, 짜증날 것 같은 장면도 있었지만,  
 드래곤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재밌다 생각하고 넘겼던 것 같아.  
 나중에도 계속 출간되어 줄 거지?  
 그럼 21권을 기대하며 나는 갈게. 안녕.



## 있는 그대로 그림편지

영덕에 사는 어린이와 어른의 그림편지

글·그림 김응룡 김영숙 이기풍 박항희 김영해 최기열 박숙희 금나윤 황숙현 권중희

김채원 신아진 김지현 권세아 박소윤 김리하 김도하 최지용 임선미 박유슬

그림 지도 구서보 | 글 지도 김지혜 | 기획·편집·디자인·제작 소소밀밀

주최주관 경상북도 / 영덕군 / 영덕문화관광재단

기획·운영 경상북도교육청 영덕도서관

발행처 (재)영덕문화관광재단 | 발행일 2023년 10월 25일

ISBN 979-11-985143-0-1 03810

본 사업은 2023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경상북도와 영덕군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림편지'는 영덕군민들의 문화창작 활동 결과물로 해당 저작권은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및 경상북도교육청 영덕도서관과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